전북회화



2003년 통권 제11호
전 북 회 화 회 발 행

들꽃에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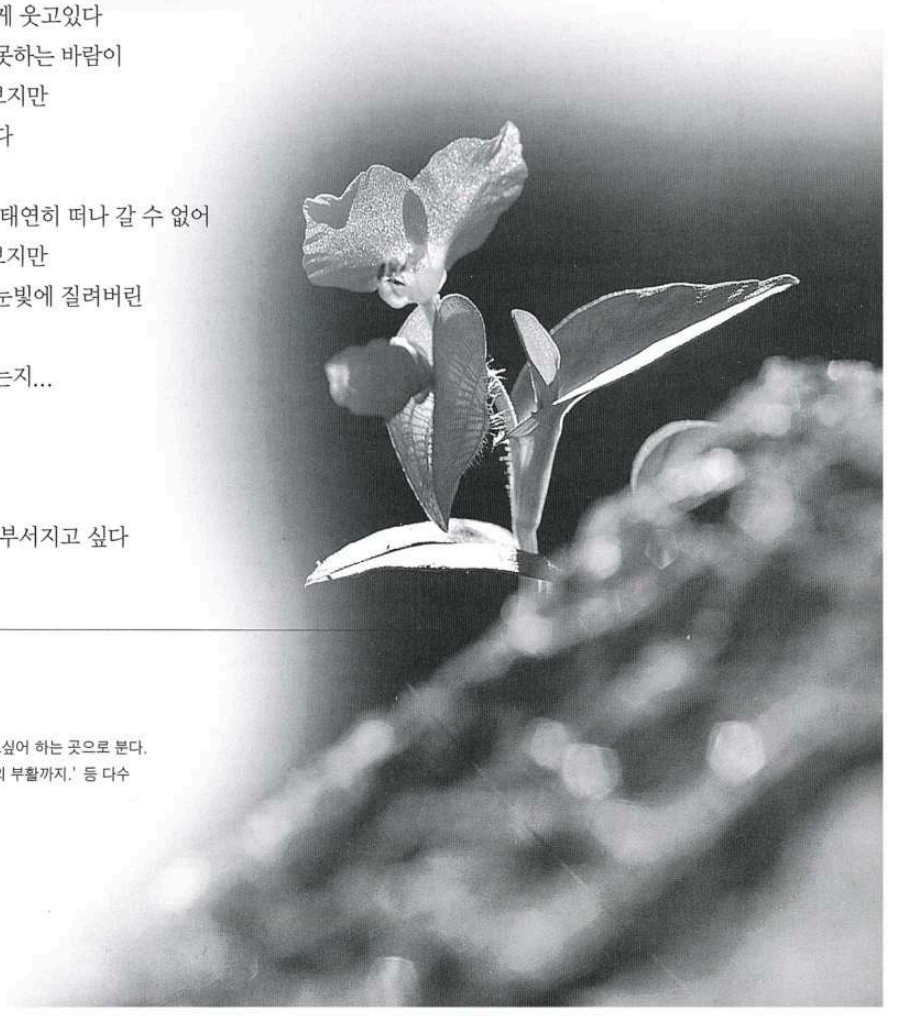
전 길 중

한 칸씩 볕을 따라 키를 재며
하늘을 보는 눈빛이 살아있다
매양 담담히 스치는 존재이지만
때로는 꽃 한 송이가 사람을 견디게 한다
아름다움일 때
사람이거나 꽃이거나 존재의 의미를 가진다

오늘도 길을 나선다
푸른 바람 살랑거리고
가슴 속 햇빛이 뜨거운 날
풀숲에 숨은 들꽃이 환하게 웃고있다
예쁘다 꺾지도 옮기지도 못하는 바람이
쓰다듬으며 자꾸 건드려보지만
고개만 살래살래 젓고 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태연히 떠나 갈 수 없어
머뭇거리며 자꾸 뒤돌아보지만
앙칼지게 쏘아보는 꽃의 눈빛에 질려버린
낯빛이 하얗다
어쩌다 이리 길들여져 있는지...

슬프게 하지마
앙증맞은 꽃망울 하나
서릿발 풀린 흙덩이 마냥 부서지고 싶다



약 력

월간 "시문학"으로 등단
전북문인협회, 한국문인협회 회원
시집 '안경너머 그대눈빛, 바람은 가고싶어 하는 곳으로 분다.
힘의 균형을 위하여, 섬에서 달의 부활까지.' 등 다수
군산여자고등학교 재직

제 1 회

전국 청소년 전통회화 실기대회

◎ 장　소 : 국립전주박물관 사회교육관 기획전시실
◎ 기　간 : 2003. 11. 30(일)~12. 6(토)
◎ 시상식 : 2003. 11. 30(일) 오후 3시

· 주 최 : 전북회화회
· 주 관 : 실기대회 운영위원회
· 후 원 : 우진문화재단
· 협 찬 : 신한화구 / 전주화방 / 동양당 / 자화상종합미술교육원 – nanara.com

인 사 말

서 진 숙
(전북회화회 회장)

오늘날 한국회화의 상황은 전체화단의 침체와 경제적 위기까지 더하여 그 입지와 활동공간이 날로 축소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대학교육에서의 학부제 전환이나 도구화되고 있는 입시제도등의 일련의 추이는 전통회화(한국화)의 위기를 더욱 더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초중고 미술교육에 있어서 서구적 가치를 바탕으로 한 이른바 현대미술교육은 조형분야에 있어서 왜곡된 전통적 가치와 심미관을 재촉하였을 뿐만 아니라 양자간의 심각한 불균형의 상황을 촉진하였으며, 사회 전반에 팽배한 무비판적 서구 사조 일변도의 행동주의적 가치관으로 인해 전통적인 사유와 관조에 대한 올바른 점검과 가치 평가 없이 일방적 수용이 이루어져 한국인의 심성에 적용되어야 할 인성과 전인적 교육관이 황폐화되었습니다.

서구 일변도의 조형교육으로 인해 전통회화(한국화) 존립의 중추적 기반인 중, 고등학교 한국화 전공 학생의 감소가 급격히 이루어짐으로써 대학의 정원감소와 나아가 우리의 회화 즉 전통회화를 계승레像還쳐機할 인적 인프라의 부실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나름의 모색과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자구책은 위에서부터의 개선 방법 – 수많은 전시기획, 장문의 평론 등 – 이였고 공허함에 불과 하였습니다.

이제는 저변의 확대부터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어 제1회 전국 청소년 전통회화 실기대회를 통하여 우리의 그림-전통회화-을 올바로 계승하고 확산시켜 전문성을 살리며 전통회화의 전수자와 계승자의 초석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주는 밑거름의 역할이 되고자 하여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실기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애정을 가지고 도와주신 우진문화재단 이사장님과 각 미술대학 교수님들, 여러모로 협찬해주신 분들, 전북회화회 회원님들 모두 진심으로 깊이 감사드립니다.

출발은 미흡했지만 순수한 목적이 뚜렷한 만큼 한해 한해를 거듭할수록 이 대회가 전통회화의 메카로 만들 수 있도록 토대가 되어 청소년들의 예술적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장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주위에서도 많은 성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 사 말

이 재 승
(예원예술대학교 교수)

21세기는 문화예술의 시대라 합니다. 특히 우리의 것이 세계적이라는 말이 보편화되어 가고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것을 세계에 알리고 우리의 아이덴터티를 확보하여 세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특히 미술분야에서 우리 것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학생을 지도하고 있는 입장에서 봤을 때 전통회화(한국화)의 침체는 상당한 기간걸쳐 진행되어 왔었습니다. 특히 초중고 미술교육에 있어서 서구 중심적 실기 및 이론교육은 전통회화에 대한 관심과 우리 것을 계승발전 시켜야한다는 합목적성들을 등한시하게 하였으며 심각한 불균형을 촉진하였습니다. 나아가 전통회화의 존립의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한국화 전공 학생의 감소로 인적 인프라 구성의 부실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균형있는 미술교육을 실시해야하며, 앞에서 언급했듯이 우리의 것을 제대로 계승 · 발전시켜야 할 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이번 예향의 도시 전주에서 전국 청소년 전통회화 실기대회를 개최하게된 것도 이러한 관심의 발로가 아닌지 합니다.

현 우리나라에서는 수많은 미술실기대회(대학교, 미술단체 주최) 및 공모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초창기 하나의 실외교육의 장으로서 순수하게 시작되었던 실기대회는 학교 및 단체의 홍보 역할의 장으로 전락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비해 전통회화 실기대회는 다른 실기대회에서 볼 수 없었던 돋보이는 몇 가지 장점이 있었습니다.

첫째, 참가비가 없다는 점이 일단 순수한 교육목적에 부합되고있습니다.

둘째, 잡다한 종목으로 치루어지는 다른 대회에 비해 단일 종목(전통회화)으로 그 소귀의 목적성을 달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모든 실기대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심사 방법이 공개로 이루어 졌다는 점입니다.

당일 전 심사과정을 지켜보았던 참가학생 및 선생님들은 그 공정성을 높이 평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사에 참여하였던 본인으로서도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열린 전통회화 실기대회는 이런 면에서 발전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이제 한발을 내 딛었습니다. 명실공히 훌륭한 실기대회로 성장해 나아가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대회를 준비한 전북화회원 여러분의 노고에 박수를 보내며 후원을 해주신 우진문화재단 이사장님께도 대신 감사 드립니다.

대상-우진문화재단 이사장상〈고등부〉



원주 대성고등학교 2학년 정진화

대상-우진문화재단 이사장상〈중등부〉



전주 완산중학교 2학년 황일호

최우수상-〈고등부〉

예원예술대학 총장상



원주 육민관고등학교 3학년 김민지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학장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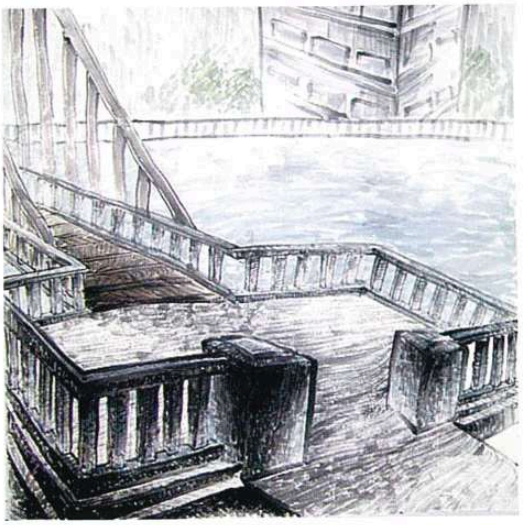
전주 예술고등학교 3학년 이현경

전북대학교 예술대학 학장상



전주 예술고등학교 3학년 김지현

전주대학교 예술대학장상



광주 예술고등학교 2학년 김은민

원광대학교 미술대학 학장상



대전 예술고등학교 3학년 신지훈

우석대학교 예체능 학장상



전주 예술고등학교 2학년 신나라

한국미술협회 이사장상



원주 대성고등학교 2학년 조경국

전라북도 교육위원회 의장상



한국전통문화고등학교 1학년 황승수

최우수상-〈중등부〉

한국미술협회 이사장상



전주 기린중학교 3학년 최유진

전라북도 교육위원회 의장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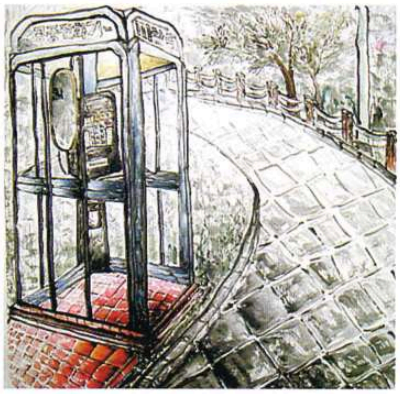


전주 신흥중학교 3학년 김옥천

우수상-〈고등부〉



전대부속고등학교 1학년 이소라



광주 예술고등학교 2학년 박선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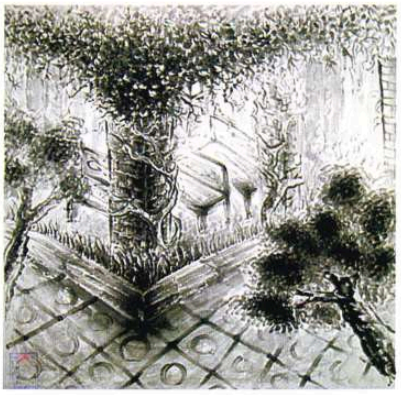
대전 예술고등학교 3학년 최의미



대전여자고등학교 3학년 유보람



송탄고등학교 3학년 강애리



광주예술고등학교 2학년 김은주

우수상-〈중등부〉



상관중학교 2학년 이다영



양지중학교 3학년 한송이



효문여자중학교 3학년 윤가영

제1회 전국청소년 전통회화실기대회 수상작 명단

*고등부

수 상 명	학 교	학년	이 름	종 목
대상(우진문화재단이사장상)	대성고등학교	2	정진화	풍경화
예원예술학교 총장상	육민관고등학교	3	김민지	정물화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장상	전주예술고등학교	3	이현경	풍경화
전북대학교 예술대학장상	전주예술고등학교	3	김지현	정물화
전주대학교 예술대학장상	광주예술고등학교	2	김은민	풍경화
원광대학교 미술대학장상	대전예술고등학교	3	신지훈	정물화
우석대학교 예체능학장상	전주예술고등학교	2	신나라	풍경화
한국미술협회 이사장상	대성고등학교	2	조경국	문인화
전라북도 교육위원회 의장상	한국전통문화고등학교	1	황승수	풍경화
우수상	전남대사대부속고등학교	1	이소라	풍경화
우수상	광주예술고등학교	2	박선미	풍경화
우수상	대전예술고등학교	3	최의미	정물화
우수상	대전여자고등학교	3	유보람	정물화
우수상	송탄고등학교	3	강애리	정물화
우수상	광주예술고등학교	2	김은주	정물화
특선	광주예술고등학교	1	윤나라	풍경화
특선	광주예술고등학교	1	김준용	정물화
특선	광주예술고등학교	2	장한별	정물화
특선	광주예술고등학교	2	문나희	정물화
특선	광주예술고등학교	2	임경미	정물화
특선	계원예술고등학교	2	노우정	풍경화
특선	계원예술고등학교	2	신정아	풍경화
특선	계원예술고등학교	2	조윤영	풍경화
특선	계원예술고등학교	2	최보람	풍경화
특선	한국전통문화고등학교	1	박대희	풍경화
특선	한국전통문화고등학교	1	임지혜	풍경화
특선	한국전통문화고등학교	1	서주영	문인화
특선	전주예술고등학교	2	최백헌	풍경화
특선	전주예술고등학교	2	박진경	풍경화
특선	전주예술고등학교	3	박윤정	정물화
특선	전주예술고등학교	3	최지예	정물화
특선	전주여자상업고등학교	3	김진주	정물화
입선	광주예술고등학교	1	전정환	풍경화
입선	광주예술고등학교	1	백범용	풍경화
입선	광주예술고등학교	2	김진태	풍경화
입선	광주예술고등학교	2	김여진	풍경화
입선	광주예술고등학교	1	박한빛	풍경화
입선	광주예술고등학교	2	최가영	정물화
입선	광주예술고등학교	2	최수정	정물화
입선	광주예술고등학교	1	심웅기	정물화
입선	광주예술고등학교	1	박현경	정물화
입선	김제만경고등학교	2	이대중	풍경화
입선	덕암고등학교	2	신보름	풍경화
입선	덕암고등학교	2	박혜미	풍경화
입선	계원예술고등학교	2	김윤아	풍경화
입선	전주혜성고등학교	2	이상석	풍경화
입선	한국전통문화고등학교	1	박사랑	풍경화

제1회 전국청소년 전통회화실기대회 수상작 명단

*고등부

수 상 명	학 교	학 년	이 름	종 목
입선	한국전통문화고등학교	1	정수나	풍경화
입선	한국전통문화고등학교	1	김규리	문인화
입선	한국전통문화고등학교	1	김태리	문인화
입선	한국전통문화고등학교	1	문병일	문인화
입선	한국전통문화고등학교	1	이세진	문인화
입선	한국전통문화고등학교	1	황인현	문인화
입선	한국전통문화고등학교	1	유리지	정물화
입선	한국전통문화고등학교	1	조아란	정물화
입선	전주예술고등학교	2	채효진	풍경화
입선	전주예술고등학교	2	이세미	풍경화
입선	전주예술고등학교	3	송해돋나라	풍경화
입선	전주예술고등학교	3	최지민	풍경화
입선	전주고등학교	2	임승현	정물화
입선	진북고등학교	2	이창민	정물화

*중등부

수 상 명	학 교	학 년	이 름	종 목
대 상	완산중학교	2	황일호	풍경화
한국미술협회이사장상	기린중학교	3	최유진	문인화
전라북도교육위원회의장상	신흥중학교	3	김옥천	문인화
우수상	상관중학교	2	이다영	정물화
우수상	양지중학교	3	한송이	정물화
우수상	효문여자중학교	3	윤가영	풍경화
특 선	풍남중학교	3	오유미	정물화
특 선	완산중학교	2	나한아	풍경화
특 선	완산중학교	2	이성한	풍경화
특 선	금구중학교	3	최수영	문인화
특 선	금구중학교	3	박수연	문인화
특 선	금구중학교	3	배혜영	문인화
특 선	효정중학교	3	고효진	문인화
특 선	솔빛중학교	3	정인재	문인화
특 선	성심여자중학교	3	김다솜	문인화
특 선	군산대성중학교	2	이성현	문인화
특 선	군산중학교	2	김희원	문인화
특 선	근영중학교	3	유혜수	문인화
입 선	구이중학교	2	이다래	정물화
입 선	구이중학교	2	김애진	풍경화
입 선	군산중학교	2	류소현	정물화
입 선	완산중학교	2	강현경	정물화
입 선	완산중학교	1	김예슬	풍경화
입 선	산북중학교	2	안가해	풍경화
입 선	산북중학교	2	변정아	풍경화
입 선	산북중학교	1	채유진	풍경화
입 선	상관중학교	2	진하리	정물화

제1회 전국청소년 전통회화실기대회 심사위원

– 실기대회 운영위원

· 이철량 교수 (전북대학교)
· 송수련 교수 (중앙대학교)
· 김문철 교수 (전주대학교)
· 곽석손 교수 (군산대학교)
· 서일석 교수 (원광대학교)
· 우상기 교수 (우석대학교)
· 이재승 교수 (예원예술대학교)

– 심사위원

· 이상찬 교수 (전북대학교)
· 송수련 교수 (중앙대학교)
· 하수경 교수 (전주대학교)
· 서일석 교수 (원광대학교)
· 이재승 교수 (예원예술대학교)

전북회화

2003년 통권 제11호
전 북 회 화 회 발 행

전북회화

2003년 통권 제11호

제자 : 효봉 여태명

전북 회화를 아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땅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보다 정확히 알고 보자는
한국화가들의 모임입니다.

CONTENTS

▶전북회화회 발자취		18
▶전북회화회전		19
▶나의 작업노트	김승호	20
	김영애	21
	박지예	22
	서진숙	23
	엄기석	24
	윤 호	25
	이광원	26
	이승훈	27
	이진숙	28
	이철규	29
	이혜련	30
	이환배	31
	정미현	32
	최병남	33
	최윤경	34
▶전북회화회를 바라보며	이철량	35
▶전시리뷰	김승호	36~37
▶작업실탐방	최병남	38~39
▶특별기고	심상용	40~41
▶역사와 미술	이동희	42~43
▶한국화에 대하여	이승훈	44~45
▶전북의 젊은 작가	안 윤	46
▶미술관을 찾아서	유상신	47~48
	전현영	49~50
	강진혜	51
▶나의 여행기	안순금	52~53
▶전시정보	편집부	54
▶읽을만한 책	편집부	55
▶전북회화회 회원주소록 및 편집후기		56

전북 회화회는 한국화를 전공하고 전북 지역을 중심으로 의욕적인 작품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작가들을 중심으로 구성하였으며 작가 개개인의 작가적 역량을 넓히고,
회원 상호간의 교류를 통해 지역의 작품활동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조직 되었으며,
전북 회화회지 발간을 통해 지역 예술활동의 질을 높히고 한국화에 대한 저변확대의 기회를 갖고자 한다.

전 · 북 · 회 · 화 · 발 · 자 · 취

1990. 3. 13	전북회화회 창립
1990. 5. 31~6. 13	중앙시장 사람들展-얼화랑-주제전
1991. 1. 4~5	스케치여행:해남 대흥사
1991. 3. 9~14	전북회화회展-전북예술회관-정기전
1991. 6. 8~20	전북의 산하展-우진문화공간-주제전
1991. 6. 15	전북의 산하展에 따른 "작가와의 대화"-전시장
1991. 8. 31	하계 세미나-지리산 정아콘도
	주제:"미술의 구조적 이해"에 대하여-
	F.B.Feildman저, 김춘일 역(사회:이철량)
1992. 6. 4~10	전북회화회展-대성화랑-정기전
1992. 12. 1~7	교동의 표정展-얼화랑-주제전
1993. 5. 14~20	전북회화회展-우진문화공간-정기전
1993. 5. 16	정기전에 대한 "작가와의 대화"-전시장
1993. 8.	하계 스케치여행:군산 개야도
1993. 9. 17~26	전북회화회展-정갤러리-주제전
1993.	제1호 전북회화지 발행(창간호)
1994. 2. 25~26	정기모임 및 신입회원-환영MT(회문산 자연휴양림)
1994. 6. 15~21	전북회화회展-전북예술회관-정기전
1994. 7. 29	하계스케치-동상 수련장
1994. 12. 12~20	후반기 전북회화회 테마展-전북인물 열전-예루갤러리
1994.	제2호 전북회화지 발행
1995. 1.	정기모임 신입회원 환영식-변산해수욕장
1995. 3. 17~23	전북회화회 정기전 및 세미나(전북예술회관)
1995. 3. 18	세미나주제:"우리다운"미술작품을 창작해야 하는
	문제를 논의하자.
	강사-박용숙(미술평론가, 동덕여대 교수)
1995. 11.	후반기 전북회화회 테마展-광복50주년(기린예원)
1995. 12. 22	파출소그림 걸어주기(전주시내 12개파출소 작품기증) 정기총회
1995.	제3호 전북회화지 발행
1996. 1. 25	정기모임
1996. 6. 28~7. 4	전북회화회展-전북예술회관-정기전
1996. 12. 6~13	전북회화 테마展-기린갤러리-전북문화 유적 기행전
1996.	제4호 전북회화지 발행)
1996. 12. 12	정기총회
1997. 2. 20	신입회원 추천 및 연간계획
1997. 4. 19	신입회원 환영회 및 세미나
	주제:한국화의 침체,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초청강사:이철량 교수님
1997. 6. 26	정기 전시회 및 전북회화지 발간에 대한 논의
1997. 8. 28	전북 회화지 발간 편집 1차 모임
1997. 10. 28	전북 회화회展, 제5호 전북 회화지 발행
1997. 12.	정기총회 및 결산
1998. 2.	동계야외 스케치-덕유산, 운주
1998. 4.	정기모임-하계 도예 캠프 계획 수립
1998. 6.	정기모임-정기 전북회화회전 계획 논의
1998. 8.	하계 도예 캠프-기간:8.6~8.8 장소:백제도예
	테마를 위한 마이산 기행-기간:8.8
	안내:진안 문화원장 1998. 10. 정기모임 1998. 11. 18
	전북 회화회전 및 제6호 전북 회화지 발간
1999. 1. 14~1. 16	도예캠프(백제예술대학 도예과)
1999. 1. 14	초청 세미나(주제:21C 한국화의 전망 및 기대와 역할
	초청강사:이철량 교수
1999. 1. 15	도예초청특강
	(주제 "도예의 재료학에 대하여" 초청강사:심재천 교수
1999. 3. 19~3. 31	백제대학 기획 초대전
	-도예의 숨결을 찾아서 / 백제대학 백암미술관
1999. 5.	정기모임-한국정신과의 교류전 논의
1999. 8.	정기모임-전북회화지 논의
1999. 10.	정기모임-전북회화회 10주년 기획논의
1999. 11.~12.	전북회화회 편집 모임, 제7호 전북회화지 발간
1999. 12. 17~12. 23	전북회화회 10주년
	-1999 vs 2000 전북회화와 한국정신 교류전
	-특별기획(그림이 있는 찻상 풍경전)
2000. 5. 18	정기모임
2000. 6. 22	정기모임-신입회원 김승호
2000. 8. 18	태마여행-고창 고인돌(이기화)
2000. 8. 3~18	포스코초대전(포스코문화 갤러리)
2000. 9. 16	정기모임-전북회화지 논의
2000. 11. 8~14	전북회화회전(민촌)
2000. 12. 15	정기모임-신입회원논의
2001. 1. 11~12	정기총회 및 신입회원 환영회
	(신입회원:김란, 류명기)
	테마기행(실상사, 흥부마을)
2001. 4. 10	정기모임-홈페이지제작 및 교류전 논의
2001. 9. 14	정기모임-전시회 및 전북회화회지 논의
2001. 11. 19~11. 25	전북회화회와 오늘 그리고 내일 교류전(부산)
2001. 11. 30~12. 6	전북회화회와 오늘 그리고 내일 교류전
	(전북대 삼성문화관)
2001. 12	정기총회 및 임원선출
	(회원탈퇴-류명기, 류일선, 엄기석)
2002. 2. 28	정기모임-신입회원 추천 및 연간계획
2002. 6. 7	정기모임-전시회 및 회화지 논의
2002. 7. 10	신입회원 환영회 및 스케치여행 논의
	(신입회원-강화정, 심소연)
2002. 8. 16	정기모임 및 스케치여행-섬진강 일원
2002. 10. 12	정기모임-전시회 및 전북회화지 발간에 대한 논의
2002. 11. 22~28	제10호 전북회화지발행 및 정기전시회
	(경원아트홀)
2003. 3.	정기총회
2003. 6.	전국 청소년 전통회화 실기대회 운영위원모임
2003. 8.	정기모임-실기대회 추진계획 및 회지논의
2003. 10.	정기모임-실기대회 운영 및 정기전 논의
	(신입회원-박지혜,김영애,윤호,이혜련,최윤경,이광원)
2003. 10. 23	제1회 전국청소년 실기대회 개최(전주덕진공원)
2003. 11.	정기총회-시상식 및 입상자 전시 및 정기전논의
2003. 11.30~12.6	제11호 전북회화지 발행 및 정기전
	제1회 전국청소년 전통회화 실기대회 시상식 및 수상작 전시
	(국립전주박물관 사회교육관 기획전시실)

전북회화회전

김 승 호
김 영 애
박 지 예
서 진 숙
엄 기 석
윤 호
이 광 원
이 승 훈
이 진 숙
이 철 규
이 혜 련
이 환 배
정 미 현
최 병 남
최 윤 경

◎ 전시일시 : **2003**. 11. 30(일)~12. 6(토)
◎ 장 소 : 국립전주박물관 사회교육관 기획전시실
◎ 초대일시 : **2003**. 11. 30(일) 오후3시



김 승 호

· 전북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과 졸업
· 97 1회 개인전(기린갤러리)
· 99 2회 개인전(전북예술회관)
한일 현대미술 교류전(전북예술회관)
청년작가 위상전(전북예술회관)
겨울미술제(전북예술회관)
· 2000 새천년 오색전(전북예술회관)
전라한국화제전(국립전주박물관)
3회개인전(전북예술회관)
모필의 생명력전(전북예술회관) 그외 초대전 및 그룹전 다수 참여

바람에 휘날리는 가지...

언제부터인가 전주천의 수양버들이
제 모습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도로를 넓히면서 베어버리고
태풍에 꺽이고 봄이면 가지 치기를
너무 많이해 나무형태자체가
변해 버린 것도 많습니다.
고유의 모습을 잃어가는 수양버들을
보면서 그 그늘 아래서 더위를 식히고
친구들과 물놀이 하던 유년 시절이
생각납니다.
그러나 몸체는 텅비어 소멸되고 있지만
새로운 생성을 위해 몸부림치듯
솟아나는 가지를 보면
끈질긴 자연의 생명력을 느낍니다.
바람에 휘날리는 가지에서는
부드러움속에 감추어진 내면의
생명력을 느낍니다. 자연의 경이로움에
말없이 고개를 숙입니다.



流墨—風



김 영 애

- 우석대학교 동양화과 및 전북대 일반대학원 재학중
- 2002 얼화랑 2호전
- 2003 한국 현대 미술대전
- 2003 우묵회전
- 전라북도 미술대전 외 5회 공모전 입선



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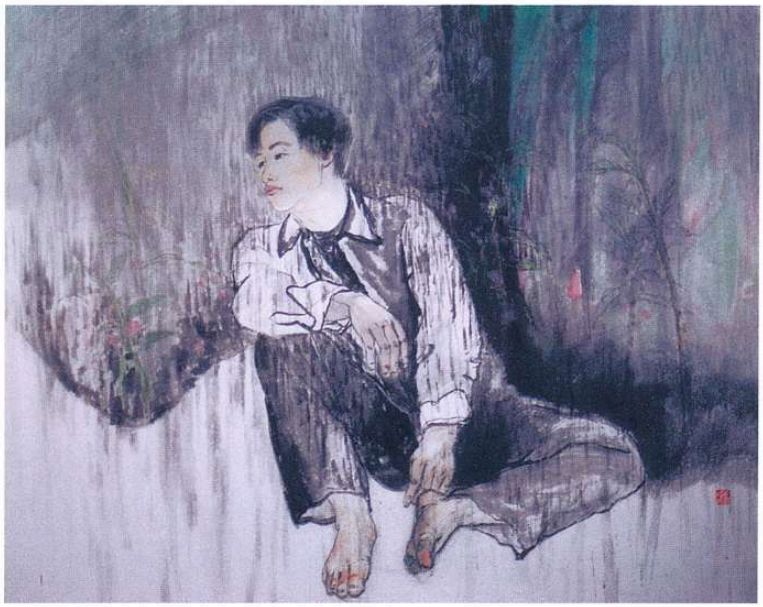
보

배움의 과정은 누구에게나 힘든 것입니다.
인내와 자신감을 무기로 한단계 한단계 깨달음을 넓혀 나간다면
언젠가는 내 자신의
영역을 구축해 낼 수 있을거라 믿습니다.



박 지 예

· 원광대학교 한국화전공 / 동대학원 졸
· 2002 박지예전(석사학위청구전)
· 2003 전라북도 미술대전(소리문화의 전당)
원묵회전(전북예술회관)
서울인사동미술축제(백송갤러리)
신진작가발언전(라메르갤러리)
전국누드크로키전(단원전시관)
라인크로키전(예술회관)
누드크로키전(민촌아트센터)
· 현:원묵회, 라인회원



울밑에선 봉선아

울밑에선 봉선아!

항상 사람들과 지내면서도 사람이 그립습니다.
내 주위의 사람들의 모습, 느낌은 다 다르지만
한결같은 마음으로 대하는 사람이 그립습니다.
삶속의 고통, 기쁨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함께하여 그리고 싶습니다.
한결같은 마음을 갖고 싶은 -지예- 씀



서 진 숙

-전북대학교 미술교육과 졸업
-개인전 1회
-2003. 8. 한국현대미술전(중국 서안미술학원 미술관)
10. 전라북도 중등미술교사전(전북학생회관)
11. 전북회화회전(국립전주박물관)
이외 단체전 및 초대전 65회 참여
-현 : 한국미협, 전통미술교육연구회, 전북회화회 회원
전주 남중 재직



살며 사랑하며

훌훌 던져버리고...

가슴 저리게 상큼하고 향긋함을 발하던
창 밖의 풍경이 어느 덧 붉은 옷 갈아입고
허공을 향해 쑥스러운 듯 서 있더니 이제는 붉은 옷 마저 훌훌 던져버리고 속내를 드러내 보이려 합니다.
저 숲 속의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 마저도 태어나 제 역할을 다 하고자 꿋꿋하게 버티고 서 있는데 아직은 젊은, 50을 갓 넘은 사랑하는 당신은 뭐가 그리 고달프고 힘들어서 이 세상을 등지려 하시는지요.
망연해질 수밖에 없는 한없이 초라한 마음 가눌 길 없고 한 가닥의 희망이라도 있다면 메달려보고 싶지만...

-가을이 지나가는 문턱에서 이모의 쾌유를 빌며-



엄 기 석

- 전북대학교 사범대학 미술교육과 동 대학원 미술학과
- 묵의 가변전(7人의 방법)-전북예술회관
- 88올림픽기념현대미술전-전북예술회관
- 한국화 그 다변성전-서울미술회관
- 엄기석 1회 개인전-전주 얼화랑
- 동계U대회 청년작가전-전주 우신갤러리
- 전라한국화제전-전주 박물관
- 한국화 내일의 조망전-서울미술회관
- 전북 현대미술제-전주 삼성문화회관
- 축복성화 초대전-전주 정갤러리
- 현:한국미협회원, 전북회화회원



생명의 노래

생명의 노래, 부활의 이야기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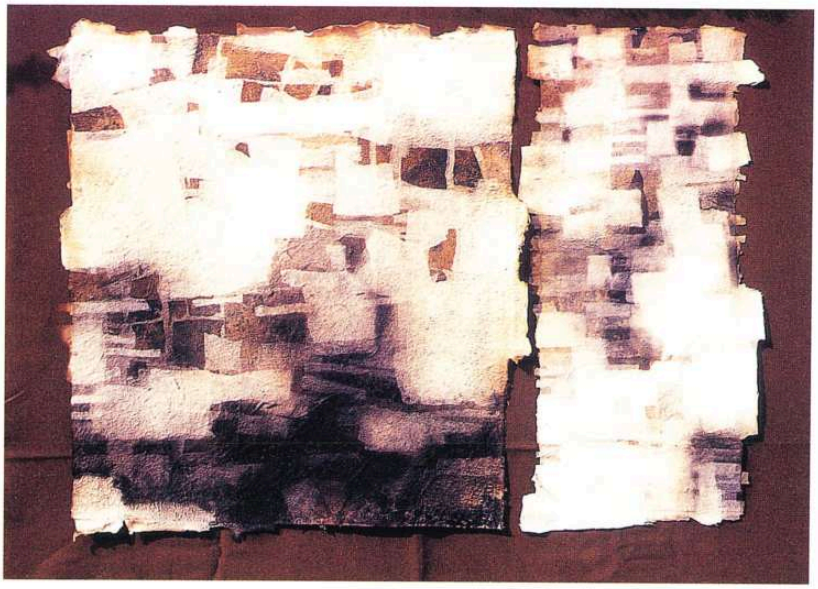
어느 해인가 등교하는 길에서 바위틈의 이름 모를 보라빛 들꽃을 보았다. 그 자잘한 들꽃을 보는 순간 생명에 대한 감사와 함께 사물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조용히 숨쉬며 생명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주변의 많은 것들에 대해서 관심 어린 사랑의 교감이 있었다.

그즈음 나는 모든 생명의 근원이고 요소이며 흐름이신 분을 만나는 영광을 안게 되었다. 이후로 나는, 나의 삶이 기쁜 소식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림을 그리는 일에서도 그렇다. 이때부터 내 머리에 가슴 속에 각인되었던 회화의 모든 이념들을 지워버리기 시작했다. 추상도, 포스트모더니즘도, 전통도, 구상도 지워버렸다. 다만 생명과의 교감을 통해서 그리는 내가 즐겁고, 욕심을 부려 감상자도 수면 속에 잠긴 생명의 이야기들 속에서 평강과 안식을 가질 수 있다면 나는 족하다.



윤 호

· 우석대학교 동양화과 졸업 및 동 교육대학원 졸업
· 춘향미술대전 입선, 전라북도 미술대전 특선 2회 및 입선
서울현대미술대전 입선
· 2000 한국미술협회 전주지부전 - 포항, 전국77리전
· 1999 광주비엔날레 특별전 - 인간의 숲, 자연의 숲
우석대학교 개교 20주년 기념전
의식의 새 물결전, 실체와 허상전
월간미술 문화 정예작가 초대전
· 1998 한 목소리전
· 현:우묵회 회원, 한국전통문화고 강사



11월이 오면Ⅱ

11월이 오면Ⅱ

싸늘한 바람소리에 떨어지는 노란잎들이 온도시를 휘감아 날아 오르면
밤은 깊어 홀로된 금성만 붉게 타오른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가슴으로 느낄 수 있다면.....
-2003년 11월 4일 작업중에-



이 광 원

· 대불대학교 예술학부 회화과(한국화)졸업
· 전북대학교 대학원 미술학과 재학

· 2003년 대한민국 미술대전 입선
· 2003년 전국 개천 미술대전 특선
· 2003년 전국 무등 미술대전 특선
· 2003년 전국 춘향 미술대전 특선
· 2002년 전국 춘향 미술대전 특선
· 2002년 전국 단원 미술대전 특선
· 2002년 전국 신 미술대전 입선
· 2002년 전국 아시아 미술대전 입선
· 2001년 전국 춘향 미술대전 우수상
· 2001년 전라북도 미술대전 특선
· 2001년 전국 벽골 미술대전 입선
· 2000년 전국 춘향 미술대전 입선
· 2000년 전라북도 미술대전 입선
· 1999년 전라북도 미술대전 입선
· 1996년 전라북도 미술대전 특선

· 그룹전 6회 채담회전-전남 예술회관 · 목포예술회관
· 전라북도 단체 연립전 2회 전북예술회관
· 2002년 부산 환경 미술제 출품



그리움

'나에게 어울릴 휴식'

목적없는 삶보다는 목적을 향해 걷고 있는 모습이 아름답고
언제나 희망을 안고 쉬고 싶은 마음이다.
목표와 의지를 느끼면서 밝은 미래를 약속하고 작품활동을 통하여
자신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작은 소망의 빛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면서
'나에게 어울릴 휴식' 이 있었으면 한다.



이 승 훈

- 전주대학교 및 대학원 졸업
- 개인전 1회
- 동으로 한국현대미술전
- 전북의 자연과 생성전
- 전북 인물열전
- 한국100인의 자연전
- 포스코 갤러리 초대전
- 산묵회, 지붕전, 전북회화회, 아트전, 익산 미협전 출품



백제기행2003

백제기행 2003

나는 한국의 조형미를 사랑한다. 자주 만나는 사람도 무반응하면 멋대가리 없지 않은가. 사랑한다고 말해야 직성이 풀리는 세태가 되었다. 그래서 한국의 조형물을 보면 인사부터 한다. 아름답구나. 너를 사랑한단다.

조선의 백자 달항아리를 보아도 그냥 무엇을 담았던 도자기에 불과하다는 통념으로 지났을 것이나, 그 보름달 같은 항아리에서 삶의 풍요로움과 튼실한 만족감을 얻을 수 있지 않은가. 더군다나 자기로 큰 항아리를 만들면 깨지기 쉬워 만들기 어렵다는 것을 우리 조상님네들은 과학적이고 조형의 아름다움을 간직하여 오늘에 있게 하였던 것이다. 일본인 야나기무네요시는 한국미의 아름다움을 애상의 미, 선의 미, 소박미, 무기교의 기교 등으로 보고 있는데 조형성 없고 기술과 창의성, 완벽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대단히 얕보고 있었다. 우리는 간혹 한국에 살면서 그렇게 한국의 미로 알고 있다.

저 백제의 미는 더 아름답다. 백제대향로, 미륵사지석탑, 백제식 절집, 서산마애불상의 미소, 무령왕릉과 그 부장품을 보면 감탄이 절로 나온다. 백제의 혼이 살아서 오는 듯 그리고 싶은 것이다. 한국의 미는 호락호락하게 보아서는 안 된다. 동양의 미가 보배롭게 함축적으로 들어 있다.



이 진 숙

· 원광대학교 사범대학 미술교육과 졸업
· 개인전 5회
· 단체전 다수 참석
· 전라북도 미술대전 특선 및 입선 다수
· 현) 완산중학교 교사, 전북회화회, 원묵회, 전통미술교육연구회



默의 明想

조금만 더!!

매일 같이 주문을 외운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엄마가 몇 달째 계시는
병실에서
누구에겐지 모를 주문을 외운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고통을 참지 못해 내지르는
소리에도
나는 주문을 외운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당신이 그렇게도
애지중지 하시던
외손자 장가가는 날까지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당신 발로 걸어서
부엌에도, 당신 방에도 가고
그리고
우리에게 미소를 보여주소서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엄마 제발 제발
나에게 당신의 목소리로
'사랑하는 딸아' 하는 날까지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이 철 규

· 우석대학교 동양화과 및 홍익대학교 대학원 동양화과 졸업
· 개인전 8회
· 전북 청년 미술상
· 대한민국 청년미술제 본상
· 전북미술대전 심사위원 및 초대작가 역임
· 단체전 200여회 참가
· 현) 전북회화회, 시공, 우묵, 미협회원
예원 대학교 조형미술학과 재직





옛날에는 ...人

채색과 수묵의 조화

나의 작업은 채색과 수묵의 조화에 있다.
각각의 다른 화면에 작업을 한 후 연결시키는 형태의 작업을 추구하고있다.
이는 음과양, 형상과 비형상, 구상과추상 사실과 사의 등으로 비유될 수 있다.
최근에 작업은 수묵화면에 인물화를 배치하고 있는데 배채를 가한
전통 초상화 기법을 재현 하고자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 혜 련

· 전주 우석대학교 졸업
· 우석대학교 교육대학원 재학중



일상으로

바람에 휘날리는 가지...

꽃무늬가 있는 천을 바탕으로 삼아 덧칠을 하고
그 위에 다시 천을 오려 붙이거나 드로잉을 하여
과거의 전통적인 조각보의 이미지를 현대적인 아름다움으로
표현하는 작업이다.



이 환 배

· 동국대학교 예술대학 미술과 졸
· 한국화 2인전(전북예술회관)
· 서울 한국화 비엔날레(시립미술관/서울)
· 우리들의 살아가는 이야기전(홍갤러리/서울)
· 정선아라리회화제(백상갤러리/서울)
· 우리의식공동체전(문예진흥원/서울)
· 의식의 확산전(예술의전당/서울)
· 감성표출전(인테코화랑/서울)
· 동악 71~94(운형궁미술관/서울)
· 대한민국 청년미술제(인천종합예술회관)
· 전라한국화제전(국립전주박물관)
· 전) 전주예고출강
· 현) 전북회화회 의식의 새물결회, 동국회화회 회원



소나무

나무야 나무야 소나무야

나무야 나무야 소나무야
너는왜 거기에 항상 우둑허니 머슴처럼 서 있느냐
우리 민족과 함께한 너의 숨결과 자태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비웃기라도 하고 있는 듯 하구나
사시사철 나의 동심을 바라봐 주던 고향으로 달려가고 싶구나



정 미 현

· 개인전 5회
· 단체전 및 초대전 90여회 참여
· 현 전북회화회, 전통미술교육연구회 회원
· 군산 산북중학교 재직

自然-水默의 은유

올 3월에 군산으로 발령이 난 뒤, 제게는 옥구 벌판을 바라보며 오가는 일이 하루 일과 중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일이 되었습니다.

3월에 만났던 그 드넓은 들판과 매일매일 무언의 대화를 나누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봄빛의 아름다움을 뽐내던 벼들은 어느 새 자랐는지 눈부신 햇살아래 황금빛을 자아냅니다. 그 모습이 부러워 늘어져 있던 주위의 땅들도 하나 둘 부활의 노래를 들려줍니다.

그 노래가 메아리쳐 온 땅과 하늘을 뒤엎고, 굳어있던 나의 영혼에 호흡을 불어넣어줍니다.생명력을 키워가듯 사뿐사뿐, 성큼 성큼, 다가오는 왕성한 대지의 입장행렬은 거대한 군악대의 대열처럼 힘있고 건강한 모습이었습니다.

여름은 훌쩍 가버리고 온 대지도 고요해집니다. 가끔은 멀리서 날아온 손님이 남기고 간 흔적에 시달리기도 하지만, 그래도 대지는 의젓하게 묵묵하기만 합니다. 어느 새 바뀌어버린 대지의 가을은 하늘의 찬란한 햇살아래 신이 내려주신 오묘한 갈빛을 도도하게 드러내며 주인을 기다립니다.

주인의 손길에 머리가 가지런해진 들판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바람은 서로들 바쁜 가슴을 두드리는지 살랑살랑 옷깃을 흔들어 댑니다.

벌써 모두들 고요한 침묵의 시간으로 여행을 떠날 준비가 한창입니다. 길목마다 그들의 휴식을 축하하는 성화를 지피기 시작하면 온 대지의 연기가 하늘에 닿아 그들의 소식을 하늘님께 전합니다.

하늘님은 그들의 노고와 땀을 칭찬하여 주시고 깊은 잠을 이룰 수 있도록 온 대지에 하얀 솜이불을 내려주시겠지요? -그 언제나처럼.

오늘도 어둑어둑 황혼이 내리는 들판을 바라보며 그 땅위에 수묵화를 그려봅니다. 그리고 저절로 고개를 숙입니다. 그들의 위대한 사랑을 보았기에.....



默의 明想



최 병 남

· 전남대학교 미술과 및 경희대학원 졸업
· 개인전 5회(정갤러리, 남태평양 피지, 전북예술회관, 갤러리고을)
· A.A.I 국제 미술전/한국정신과 전북회화회 교류전
· 오늘의 한국미술전/한 · 중화가 우호 교류전/대전 엑스포 공기전
· 한 · 일 미술 교류전/전북의 자연과 생선전 외 구룹전 · 초대전 150여회
· 현:한국미술협회 회원, 전북회화회회원, GROUP & MEMBER
전국춘향미술대전 초대작가



정 · 반 · 합-내재율

상황접근에 의한 개념들의 융합

중인리에서 금산사로 넘어가는 길목에서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를 느낄수 있는건 계절의 조화를 느낄수 있는 여유로움이 아직은 남아있는 이유일 것이다. 겨울을 맞이하는 가을의 화려한 향연, 그리고 따뜻한 봄을 기다리는 계절의 조화인 것을.

모악산에 부서지는 가을 햇살은 황금빛 가을들녘에 뿌려지고 노란 은행잎이 바람에 나부끼는 이 가을에 새삼 세월이 빠르다는 것을 느낀다. 길을 걷다가 문득 보드불럭사이에 모습을 드러낸 풀한포기에서 강인한 생명력을 엿볼수 있는 것은 우리네 삶의 단면을 보는 것 같다. 그 황량한 상황에서 뿌리를 내리는 풀한포기에서 생명의 소중함을 새삼 느낄수 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여러 가지 상황들은 각기 새로운 삶의 조화를 위한 의미있는 요소인 것이다.

이러한 요소들은 때론 서로 대치되고 서로 화합하여 우리의 삶을 더 가치있는 의미있는 결정체를 만들기 위해 조화로움을 추구하고 있다. 이땅의 모든 가치가 또는 논리가 분열로써 끝나지 않고 새로운 융합내지는 화합을 위한 순리의 수순이 될 수 있다. 기존의 가치가 가치로 끝나지 않고 논리가 논리로 끝나지 않듯이, 그리하여 새로운 창조적인 가치나 논리로 거듭나고 재창조 되어질수가 있는 것이다. 나의 작업은 이러한 삶의 논리나 가치등을 화면속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때론 대치되고 때론 분열하나 이는 또다른 융합내지는 화합을 위한 행로일 것이다. 서로 상반되는 상황, 그리고 또다른 가치와 이상을 향한 도전적 행보, 이것은 새로운 재탄생을 위한 창조적 행위인 것 이다.

우리인생에서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이러한 각양 각색의 상황들을 아우를수 있는 평화로운 그리고 평정된 고요한 화면을 위하여, 그리고 그러한 평정의 또다른 재창조된 평정을 위한 분리를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세포분열처럼 분리와 융합을 되풀이하는 우주적인 순환의 논리,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 무수한 생명체가 화합과 분열을 되풀이 하듯 현상계가 끊임없이 유동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들에 대한 나 자신의 내적반응을 시각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미세한 신경조직과 같이 퍼져있는 나의 작품에서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은 긴장과 화해, 불안과 균형, 분열과 통합, 초월과 내재, 움직임과 멈춤, 혹은 정.반.합의 변증법적 운동을 꾀하는 것이다.

현실이란 존재가 아니라 생성이요, 결정된 상태가 아니라 움직이는 과정의 연속인 것이다 그리하여 끊임없이 유동하는 정.반.합의 세계로 몰입하고자 하는 것이다. 끝없는 화두를 안고 분리를, 때론 융합을 그리고 그 이면들의 진정한 평정을 위한 또다른 화면을 꿈꾸며 나의 작업에 전착하고 싶다.



최 윤 경

· 우석대학교 졸업
· 우석대학교 교육대학원 재학
· 한국화 특장전 입선
· 2003 우묵회



흔적(60호)

흔 적

종이를 세,네 겹 정도로 발라 올려 두께를 만들어 이 위에다 부분적으로 채색을 가미하였다. 안료의 농담과 종이의 단면을 이용하여 미묘한 요철 현상을 일으키면서 넓이와 깊이의 구조적인 단면을 역력히 드러내어 만들어 나가는 작업이다.

전북회화회와 전북화단

새로운 도약을 기원하며

이 철 량

새삼스러운 것이긴 하지마는 전북은 너무나 화려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통문화 전반에 걸쳐 자랑스럽지 않은 것이 없지만 미술에 있어서도 예외는 아닙니다. 특히 전통회화의 깊은 역사는 참으로 자랑할 만한 역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그 유산을 올바르게 기억하는 사람은 사실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기억만으로 자랑스러운 역사를 알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 유산을 오늘에 우리가 지켜내고 창조해야 한다는 인식과 노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전통은 이해하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북회화회가 이러한 인식과 노력을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다행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전북회화회는 그룹 활동의 불모지라 생각될 만큼 매우 조용하기 짝이 없는 환경 속에서 그룹다운 그룹활동을 하여왔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전북지역의 그룹활동의 중심에 있다고 생각되며, 많은 후배들에게 자극을 주어 모름지기 전북에 그룹활동의 모태가 되어왔다고 생각됩니다. 정기적인 작품전시는 물론이려니와 시대와 함께 하려는 기획 테마전도 가졌으며 지역 간의 교류를 통해 미술의 소통을 넓힌 노력도 하였습니다. 더욱이 작은 것이긴 하지만 책자를 만들어 여러 정보를 나누고 자료를 정리하며 자신들의 작품에 대한 해설도 친절하게 다루어 주었습니다. 후배들에게는 큰 귀감이 되었습니다. 그런 중에 올해는 또 한국화의 인적 확산을 위해 중·고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기대회도 열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정말 칭찬 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노력은 이 지역 미술 속에 오래 기억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러한 칭찬에 결코 안주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칭찬은 매우 자랑스럽고 때로는 더욱 용기를 키워내는 약초가 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사람을 나른하게 하는 기분 좋은 마약 같은 것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할 수 있는 다양한 노력과 결실을 맺어왔던 것만은 틀림없지만 그러나 이제 또 다음단계의 과실이 더 높은 곳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 주었으면 합니다. 무엇보다 개인의 작품에 대한 성과를 더욱 높여 주길 기대합니다. 전북회화회는 작가들이 모여 있는 그룹이 분명합니다. 무엇보다 제일 큰 노력은 각자의 작품의 성과를 더욱 높이는 일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 청년미술의 자랑스러움을 보여주시길 기대합니다. 전북회화회는 다양한 관점을 가진 청년작가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들의 다양함이 곧 이 지역미술의 다양하고 발전된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다는 생각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지역의 자랑스러운 미술문화가 이어지고 창조되고 한편으로는 후배들에게 새로운 자극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유묵(流墨)-김승호 수묵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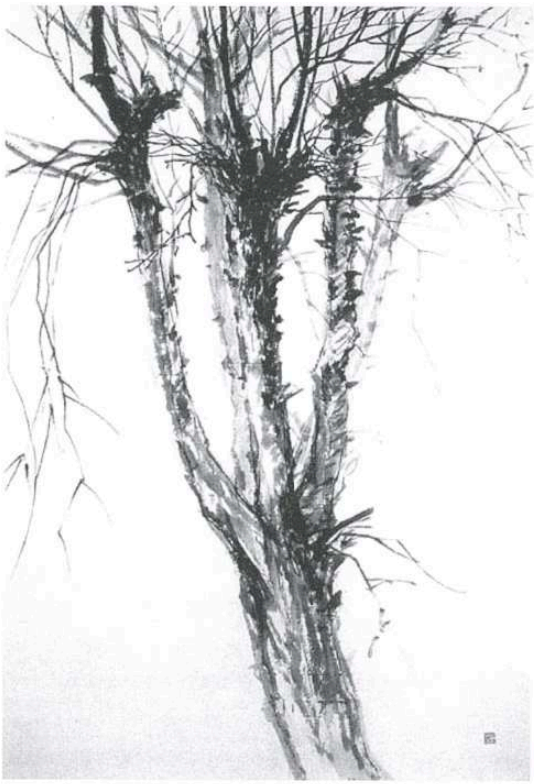
· 기간 : 2003. 5. 28~6.3
· 장소 : 공평아트센터 2층 A실



실험성을 빌미로 한 변종적 한국화가 범람하는 시류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필묵개념을 근간으로 한 수묵화의 묘경을 안출하기 위해 노력해 온 한국화가 김승호가 여섯 번째 개인전을 맞게 되었다. 청록산수에서 시작하여 수묵담채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화의를 전개해 온 그가 한국화의 소재로서는 익숙치 않은 수양버들을 화두로하여 순수한 묵상표현에 매진하게 된 시기는 2003년 3회 전시로 소급된다. 이때부터 그는 수많은 형상들과 색의 유혹을 떨쳐버리고 담채마저 배제한 채 오직 지필묵(紙筆墨)만으로 현색(玄色)으로서의 묵미(墨美)의 경계를 향해 시선을 고정시킨다.

필묵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숙련된 기본기를 바탕으로 표현된 그의 수양버들은 태풍이나 가지치기로 인해 온전치 못한 변형된 형태가 주를 이루었고 특히 나무의 특정 부분만을 클로우즈업시킨 정치한 세필묘사가 두드려졌다. 그러한 가운데 필선은 강약에 의해 여유와 긴장이 조응하고 다소간의 농담의 변화가 가미되면서 점차 그의 묵상에는 기골어린 필의가 살아 숨쉬고 수묵과 운필의 격조 역시 높아만 갔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전시는 그동안 지필묵에 대한 작가의 집착과 노력에 따른 일련의 성과를 검증해 보는 자리인 셈인데, 전통적인 화도에 비추어 볼 경우 그의 수묵미학 그 근간은 골법용필(骨法用筆)과 기운생동(氣韻生動) 나아가 수운묵장(水暈墨章)의 개념에 자리하고 있음을 읽을 수 있다. 작가는 우주만물의 모든 색을 아우르는 극색이자 색 이전의 색 혹은 가장 이상적인 색으로서 도(道)의 색이라고도 일컬어지는 순수한 먹만으로 음양의 조화는 물론 물상의 미감과 내밀한 본성마저 현현해 낼 수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수묵구오채라는 문구처럼 먹의 문채라 할 수 있는 건(乾) 묵(墨) 농(濃) 담(淡) 습(濕)의 운용을 통해 다양한 양상의 묵미를 발현해 내고 있는 것이다. 또한 수묵위상(水墨爲上)과 같은 고전미학의 기본 틀 하에서 지필묵이 아닌 물성(物性)의 탐색 예컨대 장지나 요철지 그리고 장봉과 파필의 구사 등을 시연해 가며 작가 특유의 방식으로 표현 물상의 진상은 물론 화면 전체의 기운마저 생동케 하고 있다.







을 보다 변화있고 상쾌하게 한다. 이는 그가 구도나 필묵의 운용에 있어서 일정 단계 묘용의 경지에 도달했음을 증명하는 거으로 기와 운의 표출에 있어서 골(骨) 혹은 기는 주로 나무의 굵은 가지에서 운은 느슨하면서도 가느다란 가지와 잎새들의 크고 작은 여백에서 구현되고 있다.

이처럼 주변 경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소한 대상을 소재로 삼아 전통적인 수묵의 정신성을 계승하고 소화하면서 독자적인 화경의 묘를 획득해 내고 있는 작가는 한국화를 전공하는 젊은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지 않을 수 없다 하겠다.

〈미술평론 : 미학박사 손청문〉

나아가 대상을 표현하는 필의 운용으로서의 필력을 지칭하는 골법용필에 관해서인데 이는 표현 대상의 진실을 농축된 골간의 필로 그려내는 용필의 정신적 경지를 의미한다. 기운생동의 표출여부는 골법용필에서 골색의 창출로 이어지므로 아무리 기교나 수사가 출중하다 해도 대상의 내적 생명의식과 율동성이라 할 수 있는 사의(寫意) 즉, 기골이 비동하지 않으면 화면의 신선함은 상실되고 만다. 그런 연유에서인지 어떤 꾸밈도 미화도 없는 작가의 동태적인 화면에는 단지 기골을 근원으로 한 다양한 조형의 운율만이 존재 할 뿐이다. 그의 호방하면서도 정교한 필적들 속에서 호흡과 기는 붓 끝에 기탁한 채 마치 삼전절(三轉折)의 원리라도 체득한 듯 선조의 속스러움은 찾아볼 수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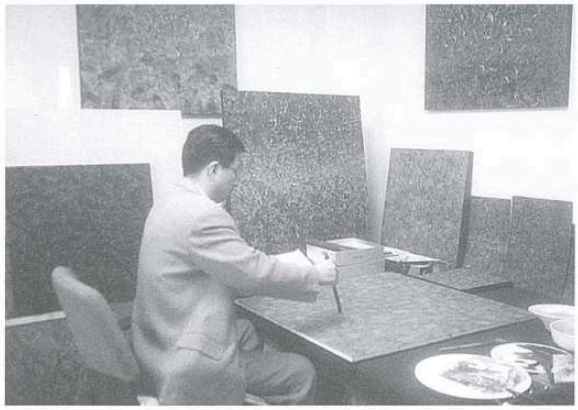
근작들에 관해서 부언하지 안을 수 없는 또다른 사항은 허(虛)를 그리는 방법 즉, 여백의 형식 감각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인데 물상과 여백 간의 성긴 조화는 실(實)을 위한 허의 작용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케 하여 화면



끊임없이 유동하는 정·반·합(正·反·合)의 세계

작업실탐방-최병남

김 선 태(예원예술대 교수)



예술품을 만들어 낼 때, 형식과 내용을 완벽하게 일치시키려는 바램은 소수의 작가에만 국한된 문제는 분명 아닐 것이다. 그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예술가들이 고민해온 문제이기도 하다.

최병남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어서 주제와 형식을 어떻게 일치시킬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는 중인 것 같다. 이때 주제와 형식의 관계란 시소가 평형을 유지하듯, 예술작품에서의 균형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것은 곧바로 훌륭한 예술품 탄생의 필수요건이 되는 것이다. 작가 최병남의 작품을 바라보면, 크기가 다양한 사각형과 이를 중심으로 하여 여러 가지 세부 형태와 그 위에 가해진 다양한 색채로 구성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여러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주된 모티브를 이루는 것은 서로 다른 비정형의 이미지들이다.

그 형태란 순수 기하학으로 볼 수 있으며, 여러 가지의 해석을 낳을 수 있지만, 작가의 말에 의하면 그것은 끊임없이 유동하여 정·반·합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필자가 보기에도 그의 작품은 무수한 생명체가 화합과 분열을 되풀이 하듯 현상계가 끊임없이 유동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들에 대한 작가 자신의 내적 반응을 시각화하는 작업으로 연관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무한 영역으로 빠져드는 듯한 회화공간, 추상적인 평면구성에 적절히 녹아 들어간 최소한의 조형적 형상과 기호, 근원을 알 수 없는 초월적이며 내재적인 노랑과 푸른빛의 파동과 반사, 미세한 신경조직같이 퍼져있는 색면과 색점들, 이들 모든 것들은 긴장과 화해, 불안과 균형, 분열과 통합, 초월과 내재, 움직임과 멈춤, 혹은 정·반·합의 변증법적 운동을 꾀한다.

흐트러뜨린 비정형적인 암시적 수법이 화면 전체를 지배하고 있으며, 이는 마치 묵시적 운율로 생을 노래하는 듯 하다. 자발적인 행위의 흔적과 선명하고 균일한 사각으로 이루어진 그의 그림은 구상보다는 추상으로 이행되는 경계선에 접해있기도 하다. 그가 창조한 기호의 독창성은 그것이 열려진 상징과 무한한 공간이라는 점에 있다. 균일한 사각으로 이루어진 막힌 공간으로서의 형상은 부유(浮遊)하는 필선의 중첩효과에 의해 무한한 공간 속으로 확장되어진다. 크고 작은 직사각형과 정사각형의 경계선을 넘나들면서 찍혀진 점과 선들은 이제 막 탄생된 생명체처럼 꿈틀거리고 있다.

불규칙한 형상과 개개의 방향으로 흩어지는 생명체의 흔적을 부여잡듯, 여전히 진솔한 삶의 모습들에서 비롯된 체험, 기억들이 가벼운 선율의 서정으로 치환(置換)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것은 바로,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번잡한 소리일 수도 있으며, 각각의 사물이 지니고 있는 색깔과 성질을 공통으로 아우르려는 소박한 심성이 담겨있는 듯 하다. 또한 그 무한한 공간은 어떤 의미에서는 다층구조의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미지화된 화면구성과 바탕, 그리고 그 구성과 바탕 사이사이의 틈새와 소단위의 색면을 구획짓는 균열같은 선묘등이 서로 연계되면서 화면 전체가 하나의 독자적인 구조체, 좀 더 정확히 말해서 소우주를 연상시킨다. 네모의 수많은 색점(色點)들이 조용히 빛을 내뿜고 있으며, 화면 전체에는 밝고 투명하고 영롱한 빛의 누벼짐, 파장, 떨림, 그리고 무한히 율동하고 미세하게 진동하면서 물결치는 빛의 순환, 중첩, 운동에

의해 소생하고 성장하는 세계의 호흡이 감지된다. 그 작은 색점들은 크고 작은 기하학적인 형상과 자연스럽게 융화되면서 시각적으로 은하수와 같은 통일감을 이끌어 내고 있는데, 자칫 경직되기 쉬운 화면에 변화와 활기를 주고 있다.

전체의 형상은 흡사 조밀한 단위들이 서로 맞물리고 중첩되거나 이어지면서 호흡하고 맥박이 뛰듯 생명성을 내재한 동태적인 자세를 보여준다. 소단위의 집단들이 연접된 근처의 집단과 상호작용하면서 대화를 속삭이며 움직인다. 이는 분명히 하나의 살아있는 색면이며 소우주라 할 수 있다. 사각의 포름을 대위법적으로 구성하고 거기에 색의 대비가 더해진다. 틀에 박힌 유형을 멀리하고 그것이 직선이건 곡선이건 전체 속에 조화를 이루게 한다. 기교를 초월한 그의 속도감있는 묘선, 색채는 처음엔 생경하고 이질적인 여러 · 요소들이 모여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은 우주와 같은 질서를 이룬다.

한편, 우주를 주제로한 작품이 너무 관념적인 소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인간이 살고있는 일상의 세계도 이미 그 존재의 깊이에서 우주적 삶을 지니고 있는 것이며, 우주가 무한(無限)의 영역인 것처럼 인간도 그 본질을 결코 정의할 수 없는 무한을 지닌 존재자이다. 바로 이 시점에서, 두 명의 철학가의 말을 인용해 최병남의 작품에 대한 해석을 내려볼 수 있겠다. "인간 존재든 사물의 존재든 결코 불변일 수는 없다." 라고 주장한 몽테뉴의 철학은 결국, 우리 자신이나 우리의 판단(그리고 불변이 아닌 모든 것)은 끊임없이 유전(流轉)과 전변(轉變)을 되풀이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희랍의 대표적 철학자인 헤라클레이토스가 주장한 만물유전설(萬物流轉說)인 생사인과가 끊임없이 윤전(輪轉)하여 끝이 없다는 세계관은 위에서 주장한 동적인 예술관과 공통된 요소를 지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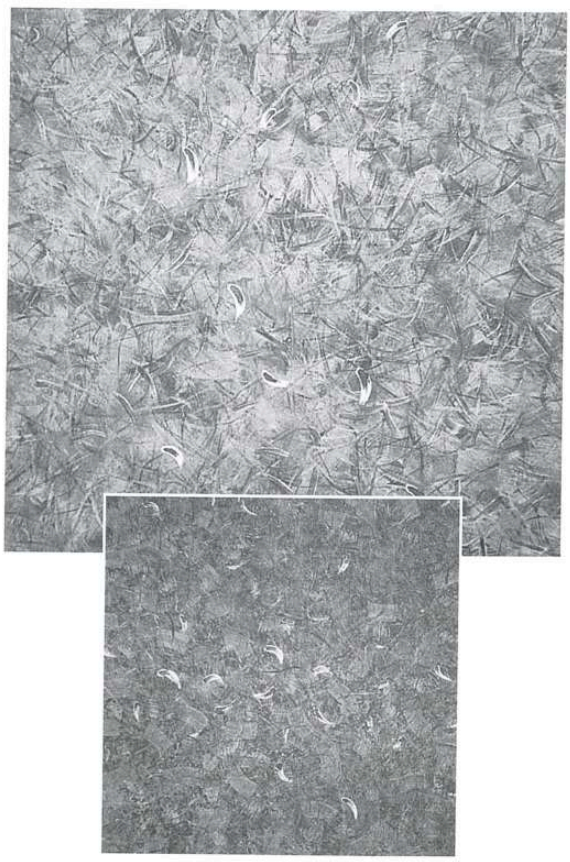
이와 같은 요소가 이 작가의 작품속에도 진눅하게 배어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일정한 필획의 반복된 구조에 의한 무한한 공간감과 깊이, 다분히 장식적이면서도 환상적인 색채가 신비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내면서 동적이며 미묘하고 잔잔한 격자 문양등 마치 생명체가 끊임없이 세포 분열을 시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현실이란 존재가 아니라 생성이요, 결정된 상태가 아니라 움직이는 과정임의 연속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또 다른 측면에서 그의 화면은 어디가 처음인지 혹은 끝인지 모르게 어우러져있는데, 이것은 순환론적인 균질화를 보여주며, 또한 강렬한 운동성을 보여주기도 한다. 이는 달리 말하면 생성과 변화의 묘를 근원적으로 보여준다는 말이다. 결국 최병남의 오랜 작업과정은 자기 자신의 내적 신화를 탄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든다.

"예술은 자유로운 감정의 표현이며, 시대적 사조나 유행에 쫓지않고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한다."라는 작가의 독백은 어느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걸으며 그만의 세계를 창조해 나가겠다는 의지의 산물이다. 그가 이렇게 형식상의 변화를 추구한 기간은 일정한 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진행되었다.

실경산수를 그렸던 1회 개인전을 제외하고는 2,3,4회 개인전 작품의 변화된 추이를 보더라도, 작가는 자신의 어느 한 부분에 만족하고 계속 머물고 싶지는 않다고 말한다. 자신의 완결된 화면에 만족하기 보다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할 뿐이라며 무엇보다 작업에 대한 자유의지에 의해 작품을 제작하고 싶다고 한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있는 삶에서 이와 같은 생각으로 화면을 대하는 작가의 새로운 변신에 주목하여 더불어 우리 미술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제 문제들에 대하여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여 반추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창작환경'의 상황과 전망

심 상 용(동덕여대 교수,미술사학 박사)

현대미술문화에 있어 창작환경이라 함은 크게 두 가지 차원으로 접근할 수 있다. 미시적인 의미에서의 창작환경은 미술가가 자신의 작품을 수행하고 실천할 수 있는 물리적인 공간과 같은 구체적인 작업환경을 의미한다. 오늘날 창작환경을 지원한다 할 때, 그것은 주로 이 같은 미시적 환경을 의미한다. 이와 달리 거시적인 의미의 창작환경을 언급할 수 있는데, 그것은 미술품의 생산과 소비, 유통과 시장, 사회적인 분위기 등 그야말로 총체적인 환경을 의미한다. 따라서 거시적 의미에서 한 사회의 창작환경이 어떠한가, 현재 어떤 결과들을 창출하는가, 혹 어떤 결과를 창출해야 하는가 등의 문제는 생산과 수요, 시장의 각 주체들과 상황들에 관한 전반적인 질문들을 통해서만 측정되고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다음과 같은 질문들이 창작환경의 상황을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수 있다.

작가들은 창작할 맛이 나는가?(작가들의 생존여건은 어떤가)
적절한 작가교육프로그램이 존재하는가?
창작활동이 어느 정도 사회와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는가?
시장은 잘 작동하는가?
사회적 수효는 있는가?(컬렉션은 어느 정도 보편적인 문화인가)
국가의 관심과 지원은 어느 정도인가?
유지와 지원을 위한 적절한 사회적 제도는 형성되어 있는가?
창작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인 동의가 형성되어 있는가?

이런 거시적인 측면에서 우리 사회의 창작환경을 점검해 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예컨대 우리의 미술창작환경은 주로 어떤 장애에 봉착해 있는가? 작가들의 충원방식은 유효한가? ('미술대학은 여전히 유효 한가'의 문제로 나아갈 수 있다.) 사회적으로 미술창작에 대한 어느 수준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가? 가격결정구조, 공급수요조절 같은 거시적 의미에서의 미술시장은 작동, 혹 존재하는가?

이 모든 요인들은 자동차의 각 부속처럼 유기적으로 작동하므로, 총체적인 분석, 진단 없이는 어떤 판단도 지엽적이고 편협할 수밖에 없다. 이 거시적 창작환경을 모두 언급할 수는 없지만, 그 현재의 상황과 전망에 관해 두 세 가지의 원론적인 확인이 가능할 것이다. 이 확인은 우리가 미시적 창작환경을 언급할 때에도, 그 배후에 연계된 총체적인 문제를 환기시킴으로써 논의를 보다 실질적인 것으로 이끌 수 있을 것이다. 이번 발제에서는 이런 사실들을 확인하고, 특히 창작환경의 급진적인 변화의 요소를 점검해 보도록 하겠다.

첫째, 창작환경은 매우 열린 구조라는 점이다. 창작환경은 그것이 생산해낸 결과를 소비하는 환경과 연계되어 있으며, 그 자체로도, 생산주체(작가)의 충원환경, 제도 환경, 정보환경과 맞물려 있다. 이런 맥락에서 창작환경은 거의 사회의 일반 환경과 맞물려있으며, 그것의 특정한 반영양식이라고 할 수도 있다. 이러한 점은 '창작환경'이란 주제를 매우 다루기 매우 어려운 것으로 만들고, 그에 관한 논의들을 지엽적이거나 추상적인 것으로, 곧 실효성이 결여된 것으로 만들어 버린다.

둘째, 창작환경은 이와 같은 복합적인 요인들로 '구성된다'는 점이다.

셋째. 창작환경이 매우 급진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1. 급속히 변화하면서 예술의 환경은 본질적으로 테크놀로지적으로 되었다.

테크놀로지적 기술뿐 아니라, 그 사유도 기술의 축적이 되어가고 있다. 이전에 작품은 정신과 윤리와 손기술의 오랜 숙성과정을 거치는 것이었다. 미켈란젤로가 시스티나 성당의 천정화를 완성하는데는 4년이 필요했다. 그러나 오늘날 4개월이 걸리는 작업조차 흔하지 않다. 있다 해도, 그 같은 작업들은 대부분 산업적 과정에 맡겨진다. 이 같은 사실은 피카소의 파피에 콜레와 듀샹의 레디메이드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갑작스런 '도약적 둔갑'에 의해 예술이 되는 것이다. 1960년대 이미 앤디 워홀에게 "5분 이상 걸리는 그림은 나쁜 그림"이었다. 1995년에 데미안 허스트는 약 90초, 그러니까 담배 몇 모금 빠는 시간에 예술작품을 '창조했다.

대중문화에서도 매력적이고 각광받는 것들은 거의 이 도약이라는 코드를 공유하고 있다. 세일러문, 마스크, 로또복권.....

이반 일리치의 말을 따르면, 속도는 하나의 추세, 더 전문가적이고 순발력에 의존하며 끊임없이 대체되는 추세로 귀결한다. 예술의 환경 역시 그렇게 되었다. "당신이 얼마나 빨리 이동하는지 말씀해주시면, 당신이 누구인지 알아맞히겠습니다." 이반 일리치의 이 말은 "당신이 어떤 카메라와 장비를 쓰는 지 말씀하시면....."으로 대체될 수 있다.

슈비터스나 아르망이 쓰레기 작업을 할 때까지만 해도 미술은 그 '낙후성', '야만성'으로 인해 그나마 좌파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비올라 같은 작가들이 사용하는 기술은 산업현장에서 쓰이는 기술과 매우 '유착적'인 관계에 있다.
또 한 가지를 언급할 수 있다. 기술과 예술의 경계는 거의 무효화되었다. 그것은 다시 과거로 회귀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전에는 예술이 가장 뛰어난 기술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현대에서 기술은 거의 낙후된 기술을 의미하는 것이 되었다. 그러나 이 낙후성은 이전의 반성적인 낙후성과는 다르다. 그것은 그야말로 기술적인 낙후성이다. 즉 낙후된 기술의 미학이 생산되기 이전에, 낙후된 기술에서 그칠 위험이 그만큼 높아지는 것이다. 그것은 기술과 그것을 차용한 예술의 기술 사이가 현격하게 좁혀짐으로써 야기된 문제인데, 이 경우 더 이상 그 둘을 별도의 기준으로 평가하기 어려워지는 것이다.

2. 현대미술의 창작환경은 작품이 아니라 비평을 생산하는 장으로 되었다.

이 같은 변화는 미술의 어떤 흐름을 더욱 가속화 시켰는데, 그것은 미술의 생산이 작품에서 비평으로 이동하는 것이다. 이것은 창작환경에서 정보적 요인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하며, 동시에 소비환경에도 급진적인 지각변동이 초래되어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구나, 현대미술의 비평은 여러모로 모호하다. 많은 경우 미술이 수행하는 비평은 자기환원적이다. 많은 미술이 단지 "이러한 것도 미술이다" 식의 자기 정체적 차원에서 비평적이다. 사회적 동인이 결여된 비평이다. 그렇다면, 비평이 사회로 향할 경우는? 그 존재론과 성패는 비평적 첨예함에 달려 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이 점 역시 의심스럽다. 그 첨예함이란 저널의 수준과 동등해 보인다. 그럼에도, 비평은 여전히 미술의 천부인권인 것처럼 간주되고 있다.(미술계 내부에서만) 이미 19세기에 에르네스트 르낭이 말한 바 있듯, 비평이 창작보다 우월한 환경이 조성되었다. 더더욱 오늘날엔 비평이 창작을 이끌고 인도하고 있다. 이전엔 창작이 비평적 관점들을 창출했다. 분명한 것은 미술이 생산과 그것의 기술에 관한 차원에서, 지적 개입의 차원으로 이전되어 왔다는 점이다. 따라서 미술의 장 전반에 있어서, '물리적 생산'은 부수적인 의미가 되어 왔다. 물리적 생산은 특히 1960년대 이후 급진적인 비판에 직면해 왔다. 그러나 역설은 더욱 확대되었다. 비평을 생산하면서, 물질적인 buyer에게 호소하게 된 것이다.

3. 무엇보다 창작환경의 지형도를 급진적으로 바꾸어 놓은 것은 작가가 되는 새로운 패턴이다.

오늘날 예술가들은 어떻게 조달되는가? 어떻게 예술계로 유입되는가? 전통적으로 화가나 조각가가 되는 과정은 길고 가난했다. 누구나 예외 없이 오랜 배움과 수학과 숙달의 과정을 거쳤다. 그러나 현대의 작가들은 점점 더 마치 하늘에서 떨어지듯 돌연히 준비되고 현현한다. 실비 플뢰리나 마리코 모리 같은 작가가 그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그들은 모두 패션 모델출신이다. 실비는 어느 날 친구의 권유로 예술가가 되었다. 마리꼬 모리는 도쿄의 문화복장학원을 졸업한 뒤 잠시 패션모델로 활동했다.

4. 세계의(우리의) 창작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비친 변수로서 'Global standard'의 문제를 들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마치 차단되었던 지구촌의 각 지역에 고속도로를 깔아놓은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했다. 그러나 고속도로는 파시스트 양식이란 아들을 잉태할 확률이 높다. 독일의 아우토반을 계획한 것은 히틀러였다. '이 구조는 모든 독일인을 하나의 고리로 연결시켜줄 것이다."(H. 비톰스키) 그렇듯, 세계화는 세계적인 통제가 될 것이고, 세계를 하나의 고리로 역을 것이다. 거기서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라는 문제가 핵심이 아니다. 문제는 그것이 자국의 고도로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환경적 요인들을 정확하게 점검하고, 보호하며, 유지 육성하는 일을 소홀하게 취급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우리의 창작환경은 거대한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우리는 앞으로 가고 있고, 동시에 열려지고 있다. 우리는 정체적 혼돈과 그것에 대한 미적 정당성 속에서, 그리고 이질의 것들에 대한 미흡한 소화력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세계문화, 문화적 세계는 불행하게도 위계화되어 가고 있고, 하나의 거대한 이윤망으로 재편되어가고 있다. 그리고 이윤은 더 한 속도를 부추길 것이다. 이미 1999년에 국제 외환시장에서는 1분 동안에 4천억 원 이상이 거래되고, 컴퓨터는 초당 370기가를 수행한다. 생산보다는 마케팅과 광고, 포장 이미지가 중요해진다. 이런 상황에서 내적 소속감, 정체성 따위는 하등 중요한 것이 아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것들을 조절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 '우리의 창작환경'이라고 말할 수 있는 영역에 관한 논의를 지속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에겐 더 이상 페르세포네의 상자를 여는 푸시케의 호기심 같은 것은 남아있지 않다. 우리는 지금 어떤 상자가 열리고 있으며, 그 안에서 무엇이 튀어나올 것인가에 대해 더 이상 이전처럼 무지하지 않다. 우리는 계속해서 변화의 환상들에 대한 우리의 분별력을 시험받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것을 조절할 수 있는 기제와 방식들, 그리고 그것에 정당성과 도덕성을 실어줄 수 있는 강력한 동인을 찾아나서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특별한 상황에서 창작과 학습이, 창조와 모방이 기묘하게 맞물려 있는 상황에서 그 해법을 찾아내는 일은 결코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전주향교

이 동 희(예원예술대 교수)



지금의 중 ·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향교(鄕校)가 우리 역사에 처음 등장하는 것은 고려중기 인종 5년(1127) 무렵부터이다. 그러나 향교가 전국적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은 조선건국후의 일이다. 성리학을 국가 주도이념으로 표방한 조선은 백성들을 유교정신으로 새롭게 무장시키기 위하여, 건국직후 '1읍 1향교' 의 대원칙을 세우고, 모든 군현에 향교를 설립하였다. 숭유억불의 기치아래 고려시대 도시 한복판에 자리했던 불교 사찰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유학을 가르치는 향교가 들어섰던 것이다. 그 결과 현재 남한만 해도 230개의 향교가 있다.

건국직후 한꺼번에 대규모 토목공사가 이루어지고, 지금처럼 물자가 풍부했던 것도 아니었으며, 또 고려색깔을 완전히 지워버려야 했기 때문에, 사찰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그 부재로 향교를 건립하는 일들이 야기되었다. 오늘날 향교에 사찰에서 쓰였을 법한 목재나 석재들이 보이는 것은 그런 이유들 때문이다.

향교 건축은 불교 절집과 분명한 차이가 있다. 사찰이 화려하다면 향교는 그런 화려함이 없다. 예컨대 부처님이 모셔진 법당은 팔작지붕으로 화려함의 극치를 이루지만, 향교는 맞배지붕으로 수수함 그 자체다. 불교건축이 화려하다면 유교건축은 단순하다. 유교건축은 절제된 단순미로 화려함도 없고 지나친 꾸밈도 없다. 이는 곧 불교가 종교로서 신비적 요소를 소지하고 있는 반면, 유교는 신비적 요소가 배제되어 있는 데에서 비롯된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이 곧 불교와 유교, 고려와 조선의 차이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불교를 대중종교요 유교를 엘리트종교라고 한다. 정신적 수준이 높지 않고서는 유교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는 뜻이다. 아주 쉽게 말해 부처님에게 빌면 아들이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지만, 공자님에게 빈다고 해서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바로 이런 차이 때문에 조선왕조 500년간 불교가 탄압을 받았으면서도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 보통사람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종교적 힘은 여전히 불교에 있었다.

향교의 구조를 놓고 볼 때, 오늘날의 교육기관과 차이는 학교안에 공자의 사당인 문묘(文廟)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즉 대성전(大成殿)을 중심으로 양쪽의 동무(東?)와 서무(西?)로 구성된 배향공간 문묘와, 명륜당(明倫堂)을 중심으로 그 양편이 동재(東齋)와 서재(書齋)로 구성된 강학공간 학교로 구성되어 있다. 대성전에는 한 중앙에 공자의 위패가 모셔지고 그 앞 좌우에 안자(顔子), 자사(子思), 증자(曾子), 맹자(孟子) 등 4성의 위패가 모셔져 있으며, 대성전 벽과 동무 서무에는 중국성현과 우리나라 사람 동방 18현의 신위가 모셔져 있다. 명륜당은 강의실이며 동재와 서재는 일종의 기숙사다.

강학(講學) 공간과 배향(配享) 공간의 배치방식은 일반적으로 평지에서는 배향공간이 앞으로 오고 강학공간이 뒤에 위치하며(前廟後學), 경사진 언덕에서는 이와 반대로 학교가 앞에 오고 문묘가 뒤에 배치된다(前學後廟). 남한의 230여 향교 중 평지에 자리한 향교는 20여곳 정도이고 나머지는 모두 경사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경사진 곳에 위치한 향교가 전체의 80%정도 된다. 전라도의 경우, 전주 정읍 나주 함평 영광 돌산 낙안 금구향교 등이 평지형이다.

이런 향교의 건물 배치법, 즉 평지에서는 문묘가 앞에 오고, 경사진 곳에서는 문묘가 뒤에 오는 것은 배향공간이 강학공간보다 더 격이 높았음을 말해준다. 조선은 공부를 하여 출세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열심히 덕을 쌓아 공자와

같은 성인이 되는 것이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임을 분명히 하였던 것이다. 강의실 명륜당(明倫堂)도 그 뜻을 풀어보면 곧 '인륜을 밝히는 건물'이라는 말이다.

사실 조선후기에 오면 그나마 남아 있던 강학기능이 사라지고 만다. 이제 더 이상 향교에서는 공부를 가르치지 않았다. 그것은 서원 등 사학에서 주로 이루어졌다. 향교에 원래는 군현의 크기에 따라 교수(종 6품)와 훈도(종9품)을 파견하였으나, 점차 유명무실해져 나중에는 아예 교관들이 파견되지 않았다. 향교에서는 오직 공자등에게 제사지내는 일만을 행하였다.그래서 조선말기에 상실된 강학기능을 살리기 위해 양사재(養士齋). 흥학재(興學齋), 육영재(育英齋) 등을 향교 부속으로 건립하기도 하였으나 효과가 크지는 않았다. 한편 향교 학생으로 양반만이 아니라 양인도 입학할 수 있었는데, 양반과 양인을 구분하여 각각 동재와 서재로 나누어 기숙시켰으며, 액내와 액외로 신분을 구분짓기도 하였다. 동재는 양반기숙사며 서재는 양인기숙사다. 정원은 읍격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전주부와 같이 부, 대도호부, 목 등 가장 큰 읍은 90명, 도호부 70명, 군은 50명, 가장 작은 읍인 현은 30명이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정원 외에도 많은 학생들이 있었다. 이는 일단 신분상승을 꾀하려는 측면도 있겠지만, 향교에 적을 두면 군역을 면제받기 때문인데, 당시의 많은 양인들이 향교의 잡역에 시달리더라도 군역을 면제받는 길을 택하였다. 이런 사실은 당시 군역의 부담이 얼마나 컸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전주향교(全州鄕校, 사적 379호)는 오목대 밑자락 기린로변에 있다. 설립연대를 확실하게 알 수는 없으나, 고려 공민왕 3년(1354)에 세워진 것으로 추정되며, 원래의 위치는 풍남동(경기전 북편)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서거정의 『부학기』에 의하면, 원래 향교가 치소 내에 있었는데, 경기전이 들어선 뒤 향교와 진전이 너무 가까워서, 유생들의 글읽는 소리 때문에 태조 영령이 편히 쉴 수 없다하여 향교를 성의 서쪽 6,7리 되는 곳으로 옮겼다 한다. 이 때 향교가 옮겨 간 곳이 지금의 화산 신흥학교 부근이다. 부지가 너무 넓고, 부중에서 너무 떨어져 있어서 도둑이나 호랑이로부터 화를 입을까 염려하여 담장을 높이 둘렀다고 하니, 당시의 전주 모습이 짐작이 간다.

1603년(선조 36) 좌묘우사(左廟右社), 즉 객사에서 남면하여 좌측에 문묘(공자의 사당), 우측에 사직단(社稷壇)을 배치하는 옛 법도에 어긋난다하여 부성밖 동편인 지금의 자리로 다시 이전하였다. 아마도 정유재란 때 소실된 것을 옮겨 중건한 것으로 짐작된다.

사직단이란 성황사(城隍祠), 여단(?壇)과 함께 3사라하여 고을의 평안을 기원하는 곳으로, '사직'이란 땅과 곡식을 의미한다. 즉 '사(社)'는 국토를 수호하는 신이며, '직(稷)'은 곡식의 풍요를 관장하는 신이다. 『동국여지승람』에 부의 서쪽 3리에 사직단이 있다고 하였는데, 지금의 기전여고 건물 동편의 작은 산봉우리를 말한다. 여단은 부성의 북쪽 5리 반대산(盤垈山)에 있었으며, 반대산은 지금 민가가 들어서 있지만 표고가 75.3m로서 기린봉에서 북서로 뻗어내린 작은 구릉이다. 성황사는 부성의 동쪽 5리 승암사 뒤쪽 견훤의 왕궁터가 있던 동고산성 안에 자리하였다.

전주향교의 구조는 전묘후학으로 배향공간이 앞에 있는데, 대성전 중앙에 공자와 4성,그 좌우로 공자문인 10철과 송조(宋朝) 6현을 배향하였고, 동무와 서무에 중국 7현과 동방 18현이 배향되어 있다. 동방 18현의 신위 배치도를 보면, 동무에 설총, 안향, 김굉필, 조광조, 이황, 이이, 김장생, 김집, 송준길, 서무에 최치원, 정몽주, 정여창, 이언적, 김인후, 성혼, 조헌, 송시열, 박세채 등이 배향되어 있다. 1949년 전국유림대회 이후, 사대사상을 마감한다는 의미로 우리나라 동방 18현의 신위를 대성전으로 옮기고, 중국 성현도 공자와 4성만 모시게 되었는데, 전주는 언제부터인가 이를 다시 바꾸어 위와같이 조선시대방식으로 성현들의 위패를 모시고 있다. 대성전 뒤가 강학공간으로, 명륜당이 중앙에 있고 그 좌우에 동무와 서무가 있다.

대성전과 명륜당 앞뜰에 400여년이 되었다는 은행나무가 각각 2그루씩 있다. 은행나무는 향교의 상징적 나무로, 은행나무가 벌레를 안타듯이, 유생들도 건전하게 자라 바른 사람이 되라는 의미를 담은 것이라고 한다. 또 공자와 그 제자 4성의 부친 위패를 모신 계성사(啓聖祠)의 존재도 전주성의 규모를 짐작케 한다.

현재의 전주향교는 1987년 대대적인 보수를 거친 것으로, 이 때 대성전과 동서무를 완전해체 복원하였고, 명륜당, 동서재, 계성사 등을 중보수하고, 지경문을 철거한 자리에 없어졌던 만화루(萬化樓)를 다시 건립하였다. 장판각도 이때 새로 건립하였다. 1992년 전주향교는 사적 제 379호로 지정되었다. 조선말 신교육이 실시되었을 때, 전주에서 가장 오래되었다는 전주초등학교가 1897년 이 곳 전주향교의 양사재를 빌려 개교하였다.

현대 한국화가 잃어버린 아름다움



이 승 훈

전통 한국화에는 산수가 펼쳐진 자연 속을 유유히 소요하는 인물이 그려진다. 서양 풍경화 속 점경 인물보다는 크고 풍경을 배경으로 하는 인물화보다는 몇 배 작은 인물이 등장한다. 낚시 대를 들고 가거나 낚시를 즐기고, 배를 타고 낚시를 하거나 폭포를 주시하고, 차를 마시거나 꽃나무를 바라다본다. 초당의 정자에 홀로 앉아 고요히 사색을 즐기거나 책을 읽고, 차를 다려 음미하기도 한다. 산책을 하며 달을 보고 시를 읊거나 풍경을 즐긴다.

서양화에서처럼 화가가 바라본 자연의 한 면에 시선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산수 풍경 속에 인물을 배치하여 그로 하여금 산수를 바라보게 한 그림을 그린다. 아름다운 자연 속에 자기 자신이 들어가서 생각하고 느끼며 돌아보게 한다. 1인칭 관찰자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 화가가 그림 속에서 바라본 곳을 그리는 것으로 시점이 이동된다. 이동시점으로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그림의 폭이 옆으로 길어지는 것과 관련이 있다. 우리의 옛 그림은 두루마리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펼쳐보면서 그림을 감상할 수 있다. 또한 병풍 그림도 우에서 좌로 시선을 돌려가면서 보면 재미있게 구경할 수 있다. 서양 그림처럼 한 중앙에서 다짜고짜 보는 것은 사진기로 보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요즈음 현대 한국화에서 –특히 공모전– 산수화나 풍경 속에 주인공 같은 사람이 그려진다면 낙선 감이 될 것이다. 간송미술관에 소장된 그림을 최운수님이 '나는 내 것이 아름답다'에 소개된 임당 백은배의 기려도 그림을 보자. 나귀를 탄 맑고 깨끗한 한 중년의 선비가 사동을 거느리고 굽어 돌아가는 길을 나귀 방울 소리와 나귀 발자국 소리에 노라서 산오리가 다급하게 달아나는 모습은 차마 눈시울을 적시게 한다. 틱닛한의 천천히 걸으며 명상하는 철학을 그 먼데 가서 구할게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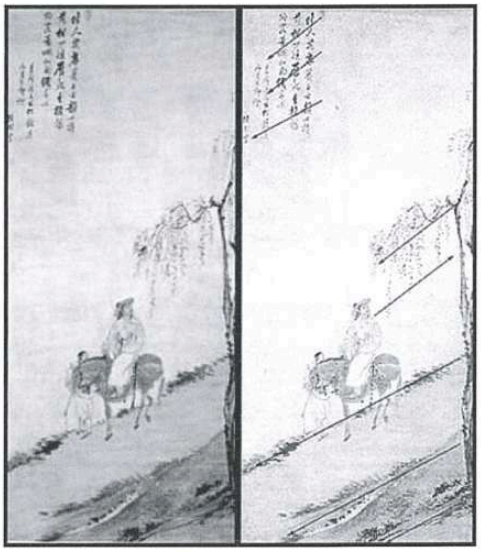
단원 김홍도의 주상관매도 그림을 보자. 그림이 묘사되었는지 그러지 않는지 자못 설명하기 어려운 끝에 배가 놓여져 있고, 그 배안에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노인과 사동이 앉아 있다. 이 노인은 아물아물 거리는 저 언덕 위의 꽃나무를 바라보고 있다. 그리고 그려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오주석의 한국미특강(솔, 2003.1)에 따르면 노인이 본 언덕과 나무는 주관적 풍경이라고 한다. 단원의 노인에 대한 감정이입을 전하는 것이다. 화제 "老年花二似霧中看, 늙은 나이에 보는 꽃은 안개 속을 들여다보는 것 같네"라는 시구는 본래 두보의 한시에서 따온 것이다. 시 한 수를 읽고 단원은 이 그림을 그리고 또 시조도 지었다. "봄물에 배를 띄워 가는 대로 놓았으니/물 아래 하늘이요, 하늘 위가 물이로다/이중에 늙은 눈에 보이는 꽃은 안개 속인가 하노라" 그리고 일필휘지로 화제를 쓰고 자작시를 시조창으로 유창하게 읊조렸다는 것이다. 그 느낌을 시로, 음악으로, 그림으로 나타낼 줄 알았고 그 집합체가 한편의 그림으로 남았다.

詩書畵는 동일시되었고 화가의 그림이 더욱 풍성하

게 되었다. 짧게는 한 행이나 시나 두 행으로 제화를 썼고 안견의 몽유도원도와 같이 그림과는 별도로 제첨과 발문, 비평시를 붙였다. 한사람의 주인공으로 그림 가운데 화가가 있으며 유창한 한편의 판소리처럼 그 울림이 그림과 함께 제화로 남았다.

간송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단원의 馬上聽鶯圖를 보고자 한다. 주인이 막 말의 고삐를 당겼는지 말의 뒷다리가 엉켜 있고 선비가 고개를 돌려 새소리 나는 곳으로 바라보고 있다. 구종 아이도 바라보는데 말만 우뚝 섰다. 그리고 배경은 텅빈 공간이다. 이 여백은 시의 내용과 같이 비안개 자욱한 강으로 보인다. 봄의 정경을 이렇게 농익게 표현한 것이다. 시흥이 감돌고 인생무상의 아련한 흐느낌 마저 젖어들게 한다. 현대 어떤 그림이 이만한 울림을 가져다 주겠는가. 표현성이다, 상징성이다 외치고 조형성의 근저를 말하고 있지만 인간의 내면을 속속히 전해줄 수 있을까. 오주석 님의 해석에 의하면 김홍ㄷ가 시까지 지었고 썼다는 것인데, 시서화는 기본이고 철저하게 공부하고 개척해 볼 일이다. 이 그림의 느낌을 죄다 시로 형성해 놓았다. "어여쁜 여인이 꽃 아래에서 천가지 가락으로 생황을 부나/시 짓는 선비가 술상 위에다 귤 한 쌍을 오려 놓았나/어지럽다 황금빛 베틀 북이 실버들 물가를 오고 가더니/비안개 자욱하게 이끌어 다가 봄 강에 고운깁을 짜 놓았구나" 우리 산천은 어디를 가도 그림 같고 시흥이 돋는다. 중국시인이 '만약 다시 태어





날 수 있다면 고려국에 티어나 금강산을 보고 죽고 싶다' 고 말했다지 않은가. 사계절이 만들어 내는 자연의 아름다운 풍광은 이 땅에 사는 누구나 시인이나 철학자, 화가로 만들 수 있다. 퇴계와 율곡이 나왔으며 많은 시인 묵객이 나왔다. 그러하기에 옛 그림 속에 온유함과 후덕함, 절제미와 조화미, 여백의 아름다움이 배어 나온 것이다.

현대 한국화는 급속히 발전하는 듯 싶더니 급속히 침체의 늪에 빠졌다. 모두가 하나는 알고 둘은 몰랐다는 것이다. 한국화 속에 서구 표현 기법만 기생하고 있다. 문인화를 별개의 것으로 분류했으며, 그 의미도 작게 생각하고 있다. 문인화 하면 사군자만 떠올리고, 수묵으로만 그려지며, 좀 더 의미가 확대 된 것이 없다. 문인화 공모전은 그 사례가 더욱 심하다. 미술대전과 각종 공모전의 한국화 그림이 조형요소로 된 표현 성에만 매달려 있지 않은가.

안윤 그만의 彩色의 세계
한국적 채색 변용가능성으로서의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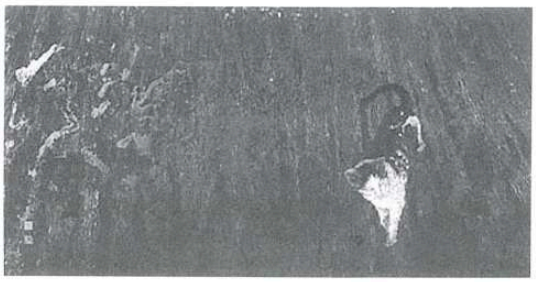
이 철 규(예원예술대 교수)



한국화의 채색화 분야에 있어서 근원적인 문제점은 적어도 서양화가나 현대미술을하는 실험성이 강한 작가들에게서 볼 수 있는 전문의식이 빈약하다는 것이다. 특히 근대에 유입된 일본화의 영향이 우세하다는 통념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 그 발전의 틀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로 인하여 채색화는 하나의 장식화로서 -표현에 중점을 둔- 기능적인 그림으로 그 역할을 충실해 왔다는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과거 우수한 전통채색재료와 그 사용방법(設彩)이 전수되지 못한 채 잊혀지고 있는 현실에서는 치열한 채색재료에 대한 연구가 병행되고 있지 못하는 것 또한 채색화가 표현의 한계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는 통념을 깨지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안윤의 채색화는 그 통념을 깰 수 있는 해결방법을 두가지 측면에서 제시해주고 있다. 첫 번째는 일단 그는 채색의 재료로서 정형화 된 분채의 사용뿐 만 아니라 자연산 재료(돌가루, 천연염료등)를 채색재료의 실험 대상으로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당한 실험정신과 도전정신은 그의 작품에서 고스란히 볼 수 있는데 분채에서 느낄 수 없는 거칠 면서 끈끈히 베어나오는 발색의 미는 고려청자에서나 느낄 수 있는 은근한 한국적 정서를 표현해 주고있다.

두번째로 그만의 독특한 표현방식(채색방식)은 그간 한국 채색화 의 정형을 이루어 왔던 일본식 채색 방식과는 붓질 자체부터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수묵의 표현방법인 점묘법 형식을 작품에 사용하고있다는 것이 한 예인데 이는 채색의 주 표현 방식인 선염식 채색방식에서 탈피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묵화에서나 볼 수 있는 정취가 그의 채색화 작품에서 고스란히 베어나오는 한폭의 수묵화 같은 채색화를 본 다는 것이다. 문인화에서나 볼 수 있는 군더더기 하나없이 긴장감을 주는 **野-시리즈** 작품은 그만의 개성있는 화면운용능력은 상당한 감각을 엿 볼 수 있다.

안윤의 채색세계는 위에서 언급했듯이 한국적 채색 변용가능성으로서의 기대를 갖게한다. 또한 마치 한폭의 수묵화를 보는 듯한 그의 채색화 작품세계가 말해 주듯이 한국화의 재료적 관념이 갖는 폐쇄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몇 않되는 젊은작가 중의 하나라는 것이다.



좌충우돌 미술관 입문기

유 상 신(군산산북중학교 교사)

'꽃들에게 희망을' 에서 트리나 포올러스는 말한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는 그냥 먹고 자라는 것 이상의 그 무엇인가가 있지 않겠느냐고. 나는 그 무엇인가를 내 나름대로 '문화의 향유' 라고 생각하며 살고있다.

산골에서 자라난 나는 대학에 입학하고 나서야 제대로 문화의 참 맛을 알게 되었다. 그 맛은 낯설지만 톡 쏘는 자극으로 삶이 지루하고 밋밋하기만 했던 나에게 무한한 호기심과 낯선 세계에 대한 동경을 안겨 주었다. 그 후 다양하게 문화, 예술분야를 접하게 되면서부터 자연스레 '문화행복 추구지수' 를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그런 생각은 결혼 후에도 자연스럽게 이어져 자녀교육에서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음은 물론이다.

나는 우리 아이들이 세끼 밥을 챙겨 먹듯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문화를 향유할 줄 아는 사람으로 성장해주길 바라고있다. 문화야말로 우리네 삶을 보다 싱싱하고 풍요롭게 해줄 수 있는 '영혼의 비타민' 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말이나 방학이 되면 우리 가족은 여행을 떠나거나 음악회, 공연장, 서점, 영화관으로 부지런히 돌아다니곤 한다.

아이들과 함께 다양한 문화공간을 두루 찾아다니면서도 유독 낯설고 어렵게 느껴지는 곳이 있었다. 바로 미술관이다. 자연이 그려 낸 풍경이외엔 달리 그림을 감상하거나 마음껏 그릴 수 없었던 환경에서 성장한 탓인지 왠지 미술관에 들어서면 낯을 가리고 어려운 숙제를 앞에 둔 아이와 같은 심정이 되곤 하였다. 그런 엄마를 둔 탓에 아이들도 미술관을 나들이 할 기회는 좀처럼 많지 않았다. 전북학생종합회관으로 도서관 나들이 길에 들러본 1층 전시실이나 가끔 들러 본 예술회관 그리고 소리문화의 전당에서의 공연을 보러 갔다가 잠시 들러본 전시회 관람이 고작이었다.

그러던 내가 요즘은 눈이 빠지게 방학을 기다리고있다. 방학이 되면 곧장 아이들과 함께 좀 더 다양하고 풍성한



미술관 순례와 문화체험을 하기 위해 서울 나들이를 떠나고 싶은 것이다. 3년 전, 신현림의 사진 산문집인 〈희망의 누드〉에서 신선한 충격을 받은 이후, 그녀의 다양한 책은 물론 미술과 관련된 책을 즐겨 찾아 읽다 보니 자연스럽게 미술이란 분야에 대한 흥미가 생기기 시작했다. 그래서 작년 여름 방학엔 큰 맘을 먹고 아이들과 함께 9박10일 동안 서울로 문화체험 나들이를 감행하였다.

서울에서의 박물관, 과학관, 고궁, 미술관, 예술의 전당, 대학로로 종횡무진 누비고 다녔던 9박 10일간의 추억은 지금껏 우리들에게 무궁무진한 이야기 거리를 제

공해 주고 있으며 또 다른 서울나들이에 대한 끊임없는 열망을 갖게 하였다. 열흘 동안 머물렀던 인사동 거리는 신선하고 다채로운 체험을 많이 제공해주었던 문화공간이었다.

인사아트센터에서의 '상상 속의 그림전'은 놀이를 통한 다양한 미술체험으로 아이들과 함께 아주 쉽게 그림과 친해질 수 있었던 즐거웠던 경험이었다. 그곳에서 처음으로 편안하게 마음이 가는 대로 느끼고 만들고 그림과 놀았었다. 우연히 지나다 들러 본 한가한 갤러리에서의 한 때는 조금은 난해하게 느껴지기도 한 현대작가들의 그림과의 대화를 시도하게 해주었고, 그림이 내게 던진 화두를 기쁘게 받아들이게 해주었는가 하면, 며칠동안 그로 인해 끙끙대보게도 하였다.

그 외에도 이리 기웃, 저리 기웃 구경하고 다닌 골동품 상가나 예쁜 그릇상점, 근사한 옷가게, 찻집의 인테리어 등은 모두 새로운 눈요기요, 볼거리요, 우리의 미적 안목을 확대시켜 주었던 것들이었다. 그 후 즐겨 맛보게 된 '미술'이라는 플러스 알파가 첨가된 '영혼의 비타민'은 우리들 생활에 더욱 더 싱싱한 활기를 불어 넣어주었다.

지난 겨울방학엔 서울 시립미술관에서 열린 '밀레전'을 다녀왔다. 워낙 사람의 발길이 많아 사람에 치였던 터라 '밀레전'보다는 그 옆 조그맣게 문이 열려있던 천경자 화가의 방에서 오랜 시간을 머물며 더욱 강렬한 인상을 안고 오기도 했었다.

그리고 올 여름방학엔 미술관 셔틀버스를 이용하여 그토록 가보고 싶었던 김환기 미술관 ,이응로 미술관 그리고 가나아트 센터 등으로 미술관 순례를 하고 왔다. 아이들도 이제는 아주 자연스럽게 미술관 나들이를 즐길 정도가 되었다. 큰 아이는 그림을 보며 자신의 느낌을 말해주기도 하고 내 느낌을 묻기도 한다.

아직은 천방지축인 둘째는 제 멋대로 구경하는 것 같으면서도 그림에서 느껴지는 강렬한 느낌을 제대로 포착하고 있다가 멋지게 표현하기도 한다. 아이들의 순수하고 때묻지 않은 이야기들은 그림 구경 못지 않게 나를 즐겁게 한다. 늘 지지고 볶는 일상생활에서는 절대로 맛볼 수 없는 아이들의 대화가 즐거워 자꾸 길을 나서고 싶은 지도 모르겠다.

'큰 아이가 공부하는 틈틈이 그림을 그리는 모습이나 둘째 아이가 기발한 생각으로 만들기나 종이 접기에 몰두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좌충우돌 돌아다닌 미술관 경험이 아이들의 창작의욕이나 미적인 감각을 건드려 준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 흐뭇하다.

쳇바퀴 돌 듯 별다를 것 없이 일상에 묻힌채 무뎌진 나의 감성이 또 다시 신선한 자극과 충격의 찬물 한바가지를 그리워하는 것을 보니 방학이 가까워지는 것이 분명하다. 돌아오는 겨울 방학엔 지난번에 들러보지 못한 국립현대미술관, 김종상 미술관과 선재아트센터, 등잔 박물관, 그리고 또 다시 인사동 그 거리를 만끽하고 싶다.

이번엔 또 어떤 낯선 것들과의 만남이 우리에게 새로운 '영혼의 비타민'을 제공해줄지 그리고 무뎌진 나의 감성을 또 다시 얼마나 반짝거리며 출렁거리게 해줄지 생각만으로도 설레는 나날들이다.



내가 본 샤갈전

"샤갈 이해하기"

전 현 영(예원예술대학교)

가을도 깊어 가는 9월의 마지막 주말, 모처럼 만에 서울 나들이에 나섰다. 이번 서울상경은 한창 열리고 있는 거장들의 전시회관람을 위한 시간이었다. 첫번째론 덕수궁에 도착하여 램브란트와 17세기 네덜란드 화가들의 작품을 감상했고(오늘 내가 말하고자하는 중심 된 내용은 여기가 아니니 그냥 이대로 지나가련다) 다음 목적지인 인사동으로 향했다. 그 많은 세월동안 서울을 오가면서도 인사동은 이번이 초행길이다. 그동안 얼마나 미술분야에 무관심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단면인 것 같아 조금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다. 거리가 온통 볼거리요 구석구석 전시회장이 자리하고 있었다. 이렇게 많은 미술인들이 활동하고 있다니 부러움과 나도 머지않아 이 반열에 들어야 겠다는 의지가 솟고 있음을 감지했다. (그리되려면 앞으로 얼마나 많은 세월이 필요할런지...)

계속해서 여러 곳을 기웃거리면서 다리가 저려올 즈음에야 샤갈전이 열리는 화랑에 도착할 수 있었다. 이름이야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거장이다. 게다가 학창시절 간간이 미술교과서에서 접했던 세월이 있었으니 어쨌든 초면의 어색함은 없으리라 생각하며 안으로 들어섰다. 입구에 준비된 그의 연보를 대하면서 막연하게 여느 거장들과 마찬가지로 몇 세기전에 살다가 이름을 남기고 사라져간 고전적인 인물이려니 생각했던 무식함이 순식간에 들통이 났다. 그의 나이 98세로 죽은 해가 1985년 이었다니 나의 지금까지의 반생도 그와 동시대에 살고 있었던 셈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 괜스레 반가움이 다가선다. 어느 누구도 시대와 동떨어져서 살 수 없듯이 샤갈 역시 많은 사조의 영향을 받은 건 사실이다. 그렇지만 샤갈은 자신만의 작품 세계를 만들어냈다. 야수파의 영향으로 색채를 다시 보자는 원칙에는 동조했으되 직접 색채 자체로 구성하여 표현하기는 거부했다. 또 표현주의적 화풍에서 영감을 받기도 하고 큐비즘의 특징인 분할적인 대상의 표현을 시도하곤 했지만 샤갈은 결코 자기만의 색깔을 저버리지 않았다. 또한 샤갈은 한 곳에 머물지 않고 폭넓은 재료와 기법의 사용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작품활동을 했는데 이는 도자기나 판화, 무대장치, 성당의 스테인드글라스 등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요즘에 자주 듣고 참 맞는 말이라고 생각되는 게 있는데 '아는만큼 보인다' 는 말이 그것이다. 여기에 하나 더 덧붙인다면 관심 있는 곳에 깨달음도 있다는거다. 처음 샤갈의 그림을 대했을 땐 뭐 이렇게 초등학생도 그릴만한 그림이 거장의 그림인가고 솔직히 반문하기도 했다. 그런데 미술의 역사와 흐름들을 배우면서 다시 바라본 느낌은 예전의 그것이 아니었다. 그렇게 초등학생 같은 그림이기에 어딘가 낯설지 않은 포근함이 배어있다. 그의 그림은 한없이 자유롭다. 어떤 틀에도 구애되지 않고 형식도 없고 애써 내용을 전달하려 고민하지도 않은 듯하다. 그의 그림에는 연인들, 악사, 천사, 곡예사, 동물, 꽃, 고향마을 등이 거의 빠짐없이 등장하고 때로는 성서적 이야기로 그가 유태인임을 상기시킨다. 샤갈은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그의 사랑과 가족과 고향, 그리고 또 다른 메시지를 남기고 싶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렇다하더라도 거기에 굳이 속박 당할 필요는 없다. 어차피 감상은 우리의 몫이니까 말이다.

그의 작품 중 많은 그림들이 파란색 바탕을 이루고 있음을 발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그림에선 암울하거나 칙칙함이 연상되진 않는다. 가만히 그의 그림을 보고 있노라면 나도 덩달아서 둥실둥실 떠오르는 느낌을 받는다. 화려하지만 야하지 않고 동심과 향수와 순수와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그만의 작품세계는 어쩌면 이론과 논제로 홍수를 이루고 있는 이 세기에 얽매임 없이 누구나가 자유롭게 상상의 나래를 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고 보면 어떨는지... 샤갈전을 보면서 잘 그린 그림만이 사람에게 감흥을 주는 건 아니라는 걸 새삼 생각하게 만든다.

샤갈을 만난다는 건 또 하나의 색다른 경험이다. 우리가 정석으로 알고 있고 감탄하는 그림은 17세기 네덜란드 화가전에서 만나게 되는 그런 그림들이다. 손을 뻗으면 잡힐 듯한 유리잔이며 옷의 주름과 질감들이 살아있는 양 만져보고 싶은 착각을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하니 말이다. 그에

비하면 샤갈전은 마치 초등학생의 학예회장 같은 느낌을 자아낸다. 그러나 여기에는 때묻지 않은 순박함과 따스함이 묻어난다. 그림에 문외한이어도 좋고 필요없이 콤플렉스를 느끼지 않아도 좋다. 그의 그림은 시공을 초월하고 상식과 대상을 초월한다. 그냥 보이는 대로 느낌 가는 대로 보아주면 그뿐이다. 어느 누구도 넥타이 매길 강요하지 않는다.

전시회장을 나오면서 아쉬웠던 건 램브란트와 17세기 네덜란드 화가전이 열리고 있는 덕수궁의 전시회장에 비해 샤갈전이 열리는 화랑의 환경은 너무 성의없이 준비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전자는 철저하게 조명과 온도를 맞추고 눈높이에 작품들을 배열하고 작품들이 돋보이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삼엄한(?)경비하에 작품을 보호하고 있었는데(물론 몇 세기전의 작품이니 손상을 우려한 배려라고 감안한다 하더라도) 샤갈전은 그냥 바닥에 죽 나열되어 있어서 작품 설명을 보기 위해 계속해서 눈을 아래로 향한 채 이동해야 했다. 그리고 소란스럽던 분위기까지도(그날에만 유독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건 아닌지 하는 의문이 들게했다. 게다가 그림 같지도 않은 그림이라고 비아냥거리던 관객들의 소리...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해서 혹은 내 취향이 아니라고해서 비난하는 일은 진정 성숙한 관람태도가 아닌 줄 안다. 아무런 선입견 없이 바라봐준다면 보지 못하던 것들을 보기도하고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느낌을 만나기도 하는데 말이다. 우리네 인생살이도 이와 같다. 상대방의 좋은 점을 찾아내는 건 서로에게 기분 좋은 경험이다. 샤갈전은 바로 이런 느낌, 가까이 있었으나 미쳐 보려하지 않았던 좋은 벗과의 새로운 만남을 갖게된 시간이었다.



Les amoureux dans le grand bouquet blanc (The lovers in the grand white bouquet)
커다란 흰 꽃다발 속의 연인들, c. 1980 Oil on canvas 65×75cm

누구든 꽃을 접하게 되면
괜스레 벅차 오르고 행복해지지 않을까?
환상적인 푸른 바탕에 온 마을을
뒤덮을 정도의 커다란 꽃다발로
두 연인의 사랑과 환희를 나타내고 있다.
그 때의 기분이란
이처럼 둥실둥실 떠다니는 느낌이겠지...



Le bouquet dans le ciel de Paris
(The bouquet in the sky of Paris)
파리 하늘의 꽃다발, c. 1978 Oil on canvas 73×60cm

샤갈의 큐비즘적 요소를 보여주는 그림.
그림이 있고 음악이 있고 그리고 사랑.
달빛에 의지하여 떠오른 고향.
이 모든 건 시공을 초월하여
언제든 찾아낼 수 있는 마음의 보석이다.

한국화단의 거목, 운보 김기창...
『솔 화랑을 다녀와서』

강 진 혜(한국전통문화고등학교 2학년)

9월 27일 오후... 학원으로 향하던 난, 운보 김기창(1914~2001) 선생님의 작품 40여 점을 전시하고 있는 솔 화랑에 들르게 되었다. 전시장 입구에서 안내를 하는 예술회관이나 학생회관과는 달리, 팜플렛만 놓여 있고 아무도 없는 조용한 전시장에서 난 혼자 한참을 머물러 있었다.

지난 겨울, 청주 운보의 집에서 보고 온 이후 처음 접하는 운보 선생님의 작품들이었다. 세상의 잡된 소리대신 신이 조용히 읽어 내리는 맑은 소리, 이야기를 들으며 한 점 · 한 선 정성스레 화폭에 옮겨지는 운보 선생님의 회화세계는 이제 신의 경지에 이르러 내 마음 속에 깊은 여운을 남겼다.

운보 선생님의 작품에서 난 조금의 욕심도 느낄 수가 없었고, 아름다운 세계만이 내 눈 속에... 내 마음속에 차분히 펼쳐질 뿐이었다. 청록산수, 화조, 바보산수 등 멋진 작품들이 많이 있었지만, 운보 미술관에서 내게 무한한 감동을 안겨다 준 「걸레추상」과 「太陽을 먹은 새」가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다. 「太陽을 먹은 새」는 태양을 먹었으되 조금의 오만함도 괴로움도 없는 오직 순수하고 무구할 뿐이었다. 비단에 채색한 청록산수는 여러 점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유독 내 눈길을 끈 작품은 '청주 빨래터'이다. 산을 표현한 먹 선에서 운보 선생님의 기가 느껴졌고, 자연스런 번짐 또한 내가 운보 선생님에게서 받은 감동이 비단에 번져 나가는 것 같았다. 「바보 山水」 또한 내게 색다른 재미를 불러 일으켰고 세태를 풍자하는 운보 선생님의 강렬한 예술 정신이 화폭에 투영되고 있는 것 같았다. 이렇게 다양한 작품들에 난 매료될 수밖에 없었고, 왠지 모를 뿌듯함에 웃음을 감출 수 없었다.

『나는 귀가 들리지 않는 것을 불행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듣지 못한다는 느낌도 까마득히 잊을 정도로
지금까지 담담하게 살아왔습니다.
더구나 요즘같이 소음공해가 심한 환경에서는
늙어갈수록 조용함 속에서
내 예술에 정진할 수 있었다는 것은
오히려 다행이었다는 생각도 듭니다.
다만 이미 고인이 된 아내의 목소리를
한번도 들어보지 못한 게 유감스럽고
또 내 아이들과 친구들의 다정한 대화 소리를
들어보지 못하는 것이 한(恨)이라면 한(恨)이지요.
예술가는 늙으면 대자연의 품에 안겨
자연의 창조주와 끊임없는 대화를 해야한다고
늘 생각해 왔습니다.
늙어가면서 하늘과 대화를 나누며
어린이의 세계로 귀의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날더러 마지막 소원을 말하라면
"도인이 되어 선(禪)의 삼매경에서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

운보 미술관에서 읽고 내 가슴을 찡하게 만들었던 운보 선생님의 글이다. 만일 내가 그랬다면....내가 운보 선생님처럼 귀도 들리지 않고 말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면....아마 난 쉽게 포기하고 돌아섰을 것이다. 이처럼 자신에게 닥친 불행을 오히려 행운으로 여기고 살다 가신 운보 선생님을 조금만 더 빨리 알았더라면...좀 더 일찍 그 분의 예술 세계를 보고 느낄 수 있었다면 이렇게 아쉽지는 않았을 텐데.....

이번 전시회는 운보 선생님의 독특한 회화 세계를 감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고, 늦게나마 운보 선생님의 비서실장이셨던 빨간 고무신 김형태 아저씨를 만나 많은 것을 배우고 들을 수 있게 된 걸 더 없는 영광으로 여기며, 이미 고인이 되신 운보 선생님께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앞으로도 많은 전시장을 다니면서 내가 감동을 느끼는 일이 잦았으면 하는 작은 소망을 안고 글을 마무리 지어본다.



전북회화 런던기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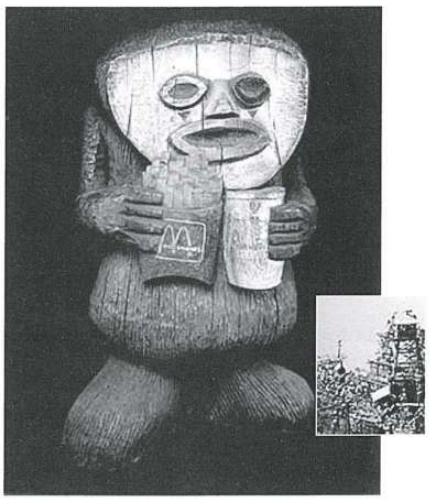
안 순 금

백 삼십 년 만에 오는 가뭄이라고 한다. 그래서인지 올 가을은 영국의 날씨답지 않고 뜨거운 가을 햇살이 며칠 간 계속 내리 쬐고 있으며 그 덕에 올 가을 단풍들은 노랑, 빨강, 갈색등 가지 가지색이다. 작년 이맘때 한국의 가을이 그리웠던 기억이 난다. 높은 산의 단풍, 가을 하늘, 햇살 그리고 무엇보다도 코스모스와 가을 들녘.....

자주 비가 오는 이곳의 날씨로 풀과 나무들이 거리거리마다 울창하고 길거리를 지나다 보면 다람쥐들이 여기저기에서 먹이를 찾는 모습이 보이기도 하고, 밤이 되면 여우들이 눈에 파란불을 켜고 나타나 놀란 적도 많다. 하지만 때때로 범죄의 기회를 주기도 해서인지 밤이 되면 길거리를 걷는 사람은 거의 없다.

어쨌든, 날씨가 화창한 덕에 우리 가족은 오랜만에 런던으로 가을 여행을 떠났다. 런던으로부터 자동차로 2시간 정도 떨어진 시골이라 지난 여름에는 기차로 갔지만 이번에는 차를 가지고 가기로 하고 지도를 챙겼다. 아이들은 우리가 여행을 가면 왜 맨날 그림만 보러 다니는지 모르겠다며 투덜댄다. 차를 타고 어딘가를 향해 집을 떠나는 것은, 어린 아이들에게나 어른들에게나 똑같이 미지의 세계에 대한 기대감 같은 것을 주는 것 같다. 그래도 즐거워하고 빨리 가자는 재촉을 하고 있으니 말이다. 런던은 다행히 주말이 되면 교통체증이 줄어드는 도시이다. 주중에 받던 혼잡 통행료도 주말에는 받지 않고, 노상 주차장의 주차료도 주말만 되면 무료인 곳도 있으니, 학생신분이고 지리에 익숙하지 않은 우리가족에게는 주말이 가장 좋은 기회이다.





중세시대부터 근대 미술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내셔날 갤러리과 이집트와 그리스의 문화유산이 전시된 대영 박물관 등에 전시된 작품들은 그동안 영국의 끊임없는 전쟁의 역사를 그대로 들여다보는 듯한 느낌이었다. 수많은 전시장에 가득 전시된 오래된 예술품과 런던 거리의 건물들의 기둥 하나하나에 조각된 작품들을 보면서 영국은 앞으로 문화 유산으로 몇백년은 나라의 부를 자랑할 수 있을 나라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본다.

1년이 지난 뒤 비로서 이 나라의 모던 갤러리를 알 수 있게 되었다. 1년 동안 지내면서 내가 본 영국 미술은 조형물과 건축들이 가장 많은 부분의 인기를 차지하고 있고, 현대의 그림들은 고전의 많은 예술 작품들에 밀려 뒷전에 놓여져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조형물과 함께 Media Art가 활발하고 판화도 눈에 띈다. 이곳은 또한 미술과와 건축과를 미술대에 포함시키고 그림과 함께 건축을 전시하기도 한다.

현대 갤러리로는 Tate Britain Gallery와 Tate Modern

Gallery가 유명하고 Tate Britain Gallery는 해마다 Turner Prize가 수상되기도 한다. 해마다 3-5명의 후보를 지명하며 그 중에 1명에게 £20,000(약 4000만원)의 상금과 3개월 간에 걸친 전시공간을 무료로 대여해 준다. 또한 이상에 지명된 화가들의 가치는 3배로 올라가지만 수상자의 가치는 2배로 오른다는 우스운 이야기도 있고, Anti Turner Prize가 생겨 Tate Britain Gallery앞에서 시위를 갖기도 한다. 이 상은 Tate의 새로운 예술 후



원회(Tate's Patrons of New Art)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그들은 영국의 예술가의 이름을 연계시키기를 위해 Turner(JMW Turner,1775-1851)라는 이름을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한다. 터너의 작품이 당대에 논란의 여지가 있었고, 터너 자신이 젊은 예술가를 위한 상의 제정을 원했기 때문에 선택된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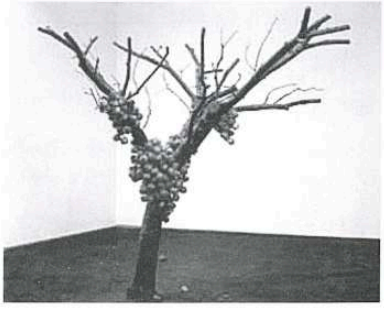
이 상은 50세 이하의 영국작가를 위한 것이며, 당해 5월 10일 이전에 특출난 전시를 한 사람에게 주어진다. 심사 위원은 매년 바뀌며, 구성원은 영국에서 일하는 작가 또는 비평가, 큐레이터 또는 화랑 기획자 그리고 테이트의 새로운 예술 후원회의 대표 등 5명으로 구성된다. 텔레비전 방송국인 Channel 4가 후원하며 시상식은 12월 7일 Channel 4를 통해 수상자를 발표하는 생중계를 할 예정이다. 수상지명작가의 전시회가 외국의 작가들의 작품들도 함께 전시되는 Tate Modern 이 아니라, 15세기부터 현대까지의 영국 예술만을 전시하고 있는 Tate Britain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는 생각을 해 본다.

Tate Modern Gallery는 영국의 현대 미술관으로는 가장 유명하다. 원래 둑 옆 발전소(Bankside Power Station)를 개조하여 만든 건물로 2층(1층과 2층이 한 층으로 연결되어 천장높이가 높음)에는 피카소, 브라크, 세잔느 등의 작품을 상설 전시하고 있고(이번이 두 번째이지만 다시 보니 새로웠다), 4층은 현재 활발하게 활동중인 작가나, 현대까지 이어져 오면서 활동했던 작가들의 작품을 기획하여 전시하고 있다. 지금(10월 2일 - 2004년 1월 4일)은 Sigmar Polke(1941년생. 동독일에서 태어나 현재 폴란드에서 활동)전이 전시되고 있는 중이다.

또한, Tate Modern과 함께 잘 알려진 곳은 Saatchi Gallery이다. Saatchi Gallery은 West Minster Abbey와 London Eye 앞쪽에 위치해 있는 전시 공간으로 원래는 런던의회 건물을 개조하여 만든 미술관이다. 현재 활동중인 알려지지 않은 혁신적인 작품을 다룬 젊은 예술가들이나, 국제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외국 작가의 작품(영국에서는 전시되지 않은)들을 전시하는 공간이다.

어쨌든 지금 영국의 예술애호가들은 올해 20회가 되는 Turner Prize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12월 7일을 기대하고 있다.





국내외 전시정보를 안방에서 감상

에이엠코리아(www.amkorea.com)'를 방문하면 미술작품을 감상을 위해 굳이 정장을 차려 입을 필요가 없다.
전국의 웬만한 미술관에서 진행 중인 전시회 주요 작품이 다 옮겨져 있기 때문.
풍부한 내용과 편리한 접속 때문에 평가에서 후한 점수를 받았다.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사람들은 혼자서 팔짱을 낀 채 골똘히 생각에 잠겨 있다. 그림 가까이 다가서기도 하고 뒤로 한 발짝 물러서며 감상한다. 미술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다.

그러나 한국웹사이트평가개발원이 인증한 '에이엠코리아(www.amkorea.com)'를 방문하면 미술작품을 감상을 위해 굳이 정장을 차려 입을 필요가 없다. 전국의 웬만한 미술관에서 진행 중인 전시회 주요 작품이 다 옮겨져 있기 때문. 풍부한 내용과 편리한 접속 때문에 평가에서 후한 점수를 받았다.

▽ 집안에서 국내외 미술관 장르를 한눈에

조용한 집, 한가로운 오후, 향기로운 헤이즐넛 향이 거실을 감싸고 편하게 차려 입은 주부가 컴퓨터 앞에 앉아 마우스를 클릭 한번으로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진경(眞景)– 그 새로운 제안전' 주요작품을 감상한다. 곧이어 장소를 옮겨 덕수궁 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위대한 회화의 시대:렘브란트와 17세기 네덜란드 회화전'을 감상한다.

에이엠코리아가 있기에 가능한 얘기다. 가까운 곳에서 미술작품을 접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설립된 비영리 자원봉사모임 에이엠코리아가 사이트 운영자다(모임 이름이 사이트 이름과 같다.)

전국의 16개시도 미술관 전시회 정보는 물론 해외 전시정보도 제공 한다.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작가를 검색할 수도 있다. 평론가 이름을 검색하면 평론한 작품과 내용을 볼 수 있다. 이 밖에 국내외 미술제, 미술서적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다.

▽ 간편한 이용법에 후한 점수

사이트 접속 후 복잡한 단계를 거칠 필요가 없는 특징을 지녔다는 것이 평가원측의 설명이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바로 전국 전시관에서 전시중인 주요 작품들이 대표 그림과 함께 나열된다. 원하는 전시회를 선택한 뒤 그림 옆에 나열된 숫자를 클릭하면 손쉽게 그림을 감상할 수 있다.

웹사이트의 응답 속도가 빠른 것도 좋은 점수를 받았다. 많은 이미지들을 보여주면서도 작품을 화면에 보여주는 속도가 평균 3초를 넘지 않았다고 평가원측은 밝혔다. 그러나 작은 글씨체는 단점으로 지적됐다.

△ 내용 36.33
△ 고객 서비스 19.33
△ 사용자 편리성 18.34
△ 운영 · 관리 16.00, 총점 90(100점 만점 · AA등급)

◈ 동아일보2003.10.7.허진석기자 기사 전문

읽을 만한 책...



21가지 테마로 보는 우리미술 〈김경자/다른세상/12,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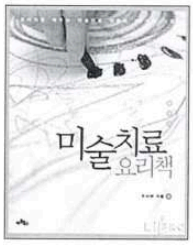
단락마다 최신의 연구결과를 반영하고 미술재료의 발달이나 사회 경제적 관점에서 미술품 거래와 미술행정, 미술가의 사회적 위치와 대중과의 관계 등 기존의 미술 사학계에서 소홀히 하기 쉬운 부분까지 아우르고 있다. 또한 연대표와 개요, 비교표 등을 배치하고 책 뒤의 부록에 풍부한 참고도서와 용어해설을 실어 깊이 있는 이해를 원하는 독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황소의 혼을 사로잡은 이중섭(그림으로 만난 세계의 미술가들:한국편Ⅱ)

〈최석태/아이세움/8,000원〉

아이들과 미술을 사랑한 이중섭의 일생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의 다양한 작품과 함께 그 시대의 사회적 상황까지도 작가의 관점이 배제된 담담한 어조로 잘 살려냈답니다.



미술치료 요리책 〈주리애/아트북스/13,000원〉

미술치료는 어떻게 하는 걸까? '요리처럼 배우는 미술치료 이론과 100가지 기법' 이라는 부제가 말해주듯 이 책은 미술치료에 관심이 있는 이들이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미술 치료 가이드북이다. 이 책은 미술치료 이론은 물론 다양한 미술기법과 검사기법을 설명하되, 치료 과정을 요리책처럼 흥미롭고 친절하게 알려준다.

저자는 책에서 미술치료사에게 환자를 치료하기 전, '자신이 먼저 해보라' 고 권유한다. 자기 자신이 그린 그림을 보고 스스로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을 때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치료를 도울 수 있다는 것. 이런 이유로 이 책은 예비 미술치료사를 위한 가이드북의 성격을 갖기도 한다. 특히 성인이라면 누구나 자가 미술치료를 할 수 있도록 독자들을 배려한 것이 눈에 띈다.



클릭 서양미술사〈캐플스트릭랜드/김호경 역/예경/23,000원〉

2만5천년에 걸친 미술의 역사를 명쾌하게 소개함으로써 미술 감상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전달할 목적으로 쓰여진 서양미술사.

미술의 기원으로 추정되는 선사시대에서 포스트모던이라고 불리는 현대에 이르기까지 미술가와 작품, 미술사조를 역사, 문화사, 인류학적인 맥락 속에서 조망하고 있다. 여타의 서양미술사 서적이 미술사가의 주관적인 관점으로 미술사를 조명한 것에 비해 이 책은 다양한 관점으로 때로는 실험적인 비교고찰을 시도한 것이 특징이다.

김경애
박지예
방정임
서진숙
안순금
엄기석
윤 호
이광원
이승훈
이우정
이진숙
이철규
이혜련
이환배
정미현
최병남
최윤경

편집후기



높고 맑은 가을 하늘 아래 형형색색 수놓았던 풍경들,
이제는 화려한 모습 떨쳐버리고 순수한 모습으로 돌아가려하는 자연 앞에서
전북회화회도 일년동안 뿌린 씨를 수확하려 합니다.
첫해로 전국 청소년 전통회화 실기대회를 무사히 마치고 역량 있는 학생들의 작품과 회원님들의
열정으로 빚어낸 작품들을 선보이며 제II호 전북회화회지가 발행되기까지 함께한 회원님들과 옥고(玉稿)를
보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신입회원님들의 활기찬 활동을 기대해 봅니다.(hh)

-발행.편집인/서진숙
-편집위원/이환배, 이승훈
-전북회화 2003년 통권 11호
-발행일 / 2003. 11.30
-대표인 [redacted]
-기획.제작/인쇄천국 (246-9796, [redacted]

전북 회화

2002

전북 회화를 아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땅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보다 정확히 알고 보자는
한국화가들의 모임입니다.

이 책자는 문예진흥
기금에서 지원 받았음